



성도의 빛 4

1970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 마가 1 : 16-17



영감의 메시지

12사도 정원회 해럴드 비. 리

청년은 어제의 아이들이며 장차 태어날 아이들의 부모입니다. 청년의 오늘
의 모습을 형성시켜 준 밑거름은 어제 배우고 습득한 지식에 의한 것이
며 오늘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것으로 내일의 자세가 이루어 집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는 글 가운데 그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라 칭하였고 문벌이나 귀한 조상으로부터의 정신적인 유산이 얼마나 중요
한 것인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
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
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 후서 1:5) 청년기에 좋은
집을 떠나 방황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어렸을때 배운 어머니의 가르침이 그
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면 마치 대양을 항해하는 배가 폭풍을 만났을 때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여 닻을 내리듯 위험한 지경에 이르면 안전을 위하
여 다시 집으로 돌아 올 것입니다.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70년 4월 1일

(통권 제57호)

발행인: 서 현 보

편집인: 홍 무 광

번역: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인쇄소: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가: 50원

1년 구독료 (우송료 포함)

국내 450원

국의 선박 5불, 항공 7불

제 6 권 제 4 호

순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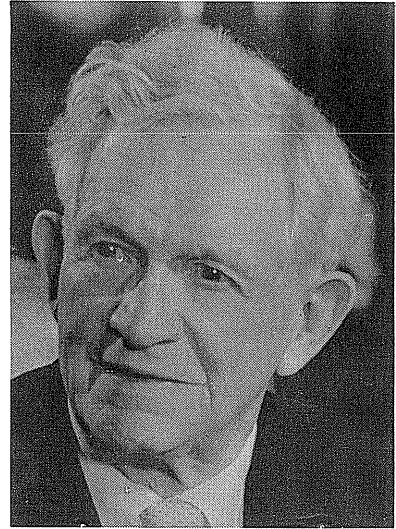
1970년 4월호

권두언 : 청년들이여 그대에게 맡겨진 신의를 지키도록 하라

데이비드 오. 맥케이	1
저마다의 돌이킴 사무엘 에이치. 홈스	3
아세아에 있어서의 말일성도 군인의 영향 더블유. 브렌트 하디	6
이러한 원리를 매리온 디. 행스	8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리드 에이치. 브렛포드	12
우리에게 표준이 없다면 리차드 엘. 이반스	15
지도자를 따르라 헤이즐 스완슨	16
폭풍우 루실 리딩	19
<input type="checkbox"/> 관리 감독단 페이지 : 직업의 선택 존 에이치. 반덴버그	20
<input type="checkbox"/> 주일학교 : 개인의 참여 호이트 더블유. 브레스터 2세	21
예수의 재판 다린 에이치. 욱스	24
70년대를 위한 비결 메이블 존스 가봇	26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빅토 비. 클라인	28
<input type="checkbox"/> 선교부장 메시지 : 교회의 표준 절차에 따르자 선교부장 서 현보 ...	30
<input type="checkbox"/> 지방부장 메시지 : 희망으로 살자 중앙 지방부장 차 중환	31
<input type="checkbox"/> 내외소식	32
<input type="checkbox"/> 진리의 말씀 : 리차드 엘. 이반스	표4

표지설명: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
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지
회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
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
시니” (마가 1: 16-17) 이달의 표
지로는 하리 앤더슨의 원색 그림
“어부를 부르시는 예수”의 그림을
표지로 삼았다.

청년들이여 그대에게 맡겨진 신의를 지키도록하라



데이비드 오. 맥케이

편집자주 : 본 기사는 고 데이비드 오. 맥케이 제9대 대관장님이 생존해 계실 때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 “네가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 동반자인 디모데에게 글을 적어 보낸 일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4:12)

당시의 교회 지도자와 바울은 청년의 힘과 용기와 확신을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청년에 관하여 알듯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서한은 이렇게 끝맺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디모데 전서 6:20)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각각 맡겨진 신의를 지키고 삽니다. 어떤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 했습니다.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사랑을 받는다는 것보다도 더 훌륭한 칭찬이 된다.”

매일매일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세상적인 용기를 요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함이 우리의 도덕적인 용기에 조절되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고난과 나아가서는 죽음을 대면해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신의를 끝까지 충실하게 지켜 인류의 역사를 찬란하게 장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고

다니엘은 신을 믿지않는 바빌론 통치자 앞에 끌려 갔었으며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앞에 끌려 갔었으며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아그립 왕앞에 끌려 갔었고 요셉 스미스는 옥에 갇혀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의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위에 열거한 사람들 말고도 수많은 인류의 지도자들이 “맡겨진 신의”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가된 가장 값진 은사는 거의가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어 졌으며 전혀 우리들의 소관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 자체가 은사입니다. 건강한 육신이나 의지도 은사라 하겠습니다. 건강은 재산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유의 말씀에 소개되는 방탕한 아들의 경우 처럼 이토록 값진 재산인 건강을 어리석게 해치고 있습니다.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육체에서 비롯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인 평화를 가질때 우리는 행복을 누립니다. 사람은 자주 엉터리 마사가 민첩하고 예민한 준마를 모된 발길질과 챗적으로 해치듯 스스로의 건강을 해칩니다. 훌륭한 준마에 발길질을 하거나 챗적을 퍼붓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 아니면 난폭한 사람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건전한 신경을 못된 것으로 자극하고 맑은 양심을 비밀스럽고 죄스런 행

동으로 더럽히는 사람도 무지한 사람이 아니면 잔인한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주 소위 인기를 위해서 방종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기의 건강이나 높은 성품을 희생해서까지 인기를 사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인기를 위하여 유혹에 굴복하는 자는 마침내 자기가 진실로 원하는 바를 상실할 것이며 자기의 분수와 표준을 지키는 자는 남의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수고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또 다른 신의는 바로 우리들의 이름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깨끗한 채로 더럽히지 않는 것이 청년이 이행해야 할 가장 큰 의무의 하나가 됩니다.

젊은이에게 주어진 가장 중대한 권고는 이렇습니다. 즉 자신의 신임으로 얻은 귀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컨대 모든 젊은이는 아들로서의, 즉 자식으로서의 자기 임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세번째 임무는 교회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회원이 못된 짓을 행하였을 때는 교회 회원 전체가 반드시 그 화를 입습니다. 훌륭한 성도를 배출하는 교회라야 끝까지 존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교회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여러가지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도와야 하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 표준에 어긋나는 것들을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표준은 신앙개조 제13조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민에게 선행할 믿는다. 진실로 바울의 훈계를 따르다 할 수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미 모든 것을 참아 왔으니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기를 원한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만 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

이밖에도 또 다른 신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은사는 오직 우리 개개인의 참된 생활과 노력으로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간증입니다.

요기에 보면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으로 축복하신 사람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집에 착한 아들과 딸을 두었고 넓고 기름진 땅도 있었었습니다. 들에는 가축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고 종도 많이 두었습니다. 그는 온갖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는 친구도

많았고 명망도 좋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망과 질병과 폐허가 그의 주변을 휩쓸었고 그는 가축과 종을 잃었으며 무서운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딸을 앗아갔고 그도 몸쓸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전혀 사람의 모습을 잃은채 잣더미 옆에 쭈그리고 앉아 몸의 상처를 긁어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한 아내의 간호마저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욥기 2:9)

그러나 욥은 아직도 사망이나 태풍이나 불꽃이 뺏을 수 없는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 최후의 재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중에서도 “보혜사”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욥기 19:25-27)

이러한 간증이야말로 말로 생애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사라 하겠습니까. 이러한 간증은 게으름으로는 얻지 못하며 부지런 해야 얻습니다. 또한 부정직한 것이 아닌 정직으로라야 얻고 방종이 아닌 절제로 얻으며, 의심과 두려움이 아닌 신앙으로 얻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 7:17)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함으로써 병든 세상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값진 진주”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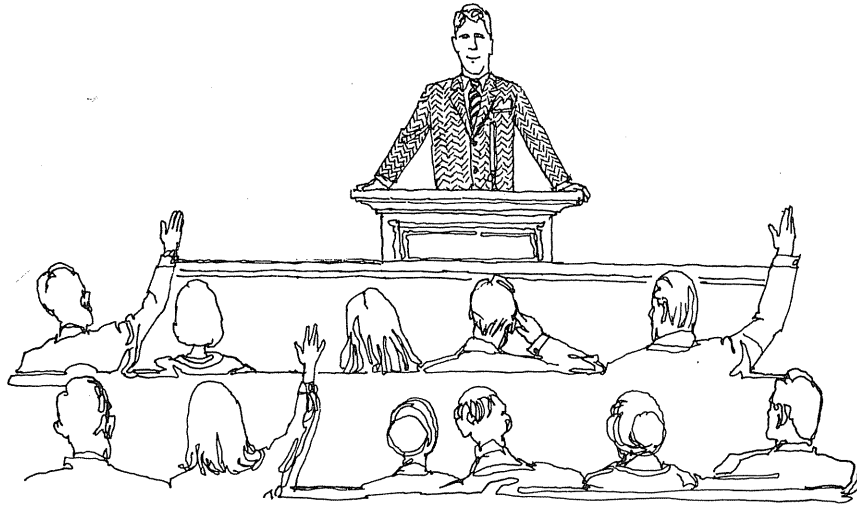
교회 젊은이들이 받는 축복—건강의 축복, 교회가 허가하는 축복과 기회, 훌륭한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얻게 하는 방법, 독생자의 사명에 대한 간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된 사실에 대한 간증—을 하나 하나 세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상고해 봅시다.

“오 젊은이여, 그대에게 맡겨진 신의를 지키도록 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찬식에서 연사가 “개종자는 모두 손을 드시오”라고 묻는 것이 이제는 아주 오랜 옛 풍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연사가 질문을 던지면 부모가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멋지게 손을 들고 교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줌 으쓱해서 주변을 둘러 봅니다. 그 다음엔 연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손을 들지 않은 사람은 언제 개종하겠오?”

이쯤되면 모든 사람이 어리둥절 할만큼 긴장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반성해 보고 다른 세대의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됩니다.

저 마다의 돌이킴

사무엘 에이치. 홀스

● 복음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교리를 반대하는 자들의 잘못된 인식이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의 행동이나 임무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피소가 될 돌이킴이라던가 돌이킴의 바탕이 되는 신앙에 관해서 편견이 없는 이해를 갖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기독교인들은 관념적으로 개종만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바로 완전하고 궁극적인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개종을 하나의 과정이 아닌 통계상의 숫자로 간주하였고 의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아닌 하나의 완성된 과업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밖에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 설명할 수 있겠으나 주로 이들은 받아 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으며 혹은 변경할 수도 있는 교회의 참여를 중점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사실 스스로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사람들 간에도 개종이라던가 돌이킴이라는 말의 공통된 정의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지식¹⁾을 쌓으므로써 구원을 받고 죄²⁾로 말미암아 벌을 받으며 지식을 갖고도 계속하여 회개³⁾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성장으로 연결되는 지속적인 과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일 자유 의지의 원리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면 돌이킴은 인간 개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크게 좌우된다고 보아야겠습니다. 복음이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돌이킴은 영적인 능력을 복음의 원리에 적용하여 양심적으로 노력할 때 얻어지는 것이라고 보아야겠습니다. 이러한 추론이 사실이라면 아무도 스스로 원하지 않고서는 돌이킴의 영역에 들어설 수 없을 것이며 돌이킴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성인으로서의 돌이킴이라던가 경험과 연구를 통한 개인의

1) 교리와 성약 130 : 19

2) 신앙개조 제2조

3) 교리와 성약 29 : 49

지식 습득을 놓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우리는 이러한 인간과 하나님의 유대에 얽힌 영적인 의미와 그것이 형성된 과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은 자체 안에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요소를 갖추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만이 은밀한 가운데 무릎을 꿇고 발전을 위해 간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종교 지식과 예언의 영감, 계명, 성약, 우리가 늘 소중하게 여기는 영적인 은사로 축적된 자본 등이 완전히 우리들 개개인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늘 이것들을 새롭게 하고 또 이러한 것을 도구로 하여 새로운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소중한 재료를 갖고도 이를 실 생활에 긴히 사용하지 않는다면 멀리서 바라보아야 할 흥미로운 모닥불이나 다름 바가 없을 것입니다. 소중한 재료를 활용할 수 있는 확신이야말로 우리가 탐구하고 노력할 때 역사하는 성신의 은사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성신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지만 의심과 반항과 거부의 청춘기에 들어선 사람에게 영적인 권세를 인식시키려 할 때에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돌이킴의 역사는 언제든지 시작될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유년기의 돌이킴은 다분히 남을 의지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상례입니다. 아이들은 외적인 요구와 마찬가지로 권위를 하나의 영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받아 들입니다. 이들은 순종하므로써 안전과 보호를 상으로 받습니다. 이러한 연령층을 교화시키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이들에게 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훈련시키고 정돈시켜 주는 작업은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의지하겠다는 이들의 성향을 오히려 연장시켜 주고 스스로 체험을 쌓아 발전하겠다는 의욕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차차 청년기에 이르르면 흥미 반, 저항 반으로 권위에 도전하며 부모에게 순종하므로써 얻을 수 있는 안전이나 보호를 별로 달갑지 않게 여깁니다. 감정이나 지성의 독립이 부모로서의 혹은 통솔자로서의 권위에 정면으로 충돌하므로써 성스러운 가족의 긴밀한 유대는 깨어지게 됩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이 말한 바 대로 어린 아이 같은 양상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고전 13:11) 이렇게 해서 성숙의 과정의 한 단계인 완숙한 돌이킴의 때가 도달합니다. 완숙의 돌이킴이 시도되는 때가 이토록 어려운 연령의 고비인 것입니다.

정말의 신비주의자 키엘케골(1813—1855)은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숭고한 감정은 신앙이다. 이런 관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후세의 사람들이 전세의 사람들보다 뛰어난 출발을 할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모든 세대는 저마다 앞세대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 본분을 다 한다는 점에 있어서 어느 세대가 다른 세대를 능가할 수는 없다.”

필립 부룩스(1835—1893 미국 성공회 감독)는 다음과 같이 간결한 말로 자기 뜻을 밝혔습니다.

“신앙에는 제일 신앙과 제이 신앙이 있다. 신앙은 쉬운 것이고 유년 시절로부터의 관념적인 믿음이며 남에게서 전래된 것이고 때와 장소가 준비해 주었기 때문에 갖는 그런 것이다. 제일 신앙이란 인간이 저마다 체험으로 취득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세대의 사람에게 강하게 제의되는 것은 바로 이 제이 신앙이며 완숙의 돌이킴에 도달하여 전진의 과정에 부수되는 모든 임무를 맡아 달라는 제의이겠습니다. 이러한 임무를 이행하지 않고 버려둔다면 내용이 없는 소리만의 언어의 반복과 남의 체험에 의존하려던 의퇴심이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회나 가족의 압력이 순종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자의력을 잃은 형태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흠뻑 전하여 돌이킴을 가능하게 한 일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의 돌이킴의 방법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막중한 임무와 사명을 맡아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기적적인 직접 계시가 물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슬피한 것처럼 그러한 상태에서도 돌이킴은 전진하고 발전해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개의 경우 신앙의 발전이란 자라나는 씨앗처럼 은밀하고 개별적이며 비밀스럽고 조용한 법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렇게 발전한 사람들의 안정된 생활을 찾아볼 수 있으며 주님께서는 늘 이러한 사람들을 그의 교회에 불러 긴하게 쓰셨습니다. 이러한 류의 사람을 나는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라는 방법에 응하여 체험으로 성장을 쌓은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들의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서로 다른 두가지 형태를 구별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한가지 형태는 돌이킴에 이르거나 복음의 간증을 갖게 될 때 이를 계산할 수 있는 제한된 성질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유형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느 특정한 언어나 행동에 대하여 요구하는 대로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갖는 확신에 대하여 단지 그것을 보배로운 것으로만 간직할뿐 다시 평가하거나 저울질해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진실하고 성실하지만 대인관계에서 응졸하고 사고방식이 편협합니다. 이들의 독해력이나 응용력도 상당히 제한되었으며 이러한 사람의 신앙은 자기가 만족했던 단 한번의 사건을 계기로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종교의 역사적 배경이나 성격에 대한 관심도 더 이상은 갖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류의 사람은 훌륭하고 신한 사람이며 아무도 해하려 하지 않으나 강직하고 경계

심이 많으며 내성적이기 쉽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도무지 호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의 형태는 아직 젊었을 때의 반항의식이 그대로 살아있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먼저 예를 든 형태의 사람들처럼 권위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의존하면서도 또 다른 유형입니다. 이들은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이나 영적인 실재에 대하여는 그것을 시험해 보기도 전에 거부합니다. 이 부류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지키는 규제나 강직에 대하여는 지극히 도전적이며 양심과 윤리를 강조하고 학구적이며 실업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일면을 보입니다. 종교의 세계에서는 이들은 자제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여 성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역에 도저히 이르지 못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감화를 받지 못하여 이를 자기들의 지적인 장애라고 생각하여 두려워 하거나 아예 이를 거부해 버리고 맙니다. 이들은 임마누엘 칸트⁴⁾가 인식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성으로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으니 곧 하나님과 자유와 불사 불멸에 관한 문제이다.”

이제 이상에 열거한 두 형태의 사람을 놓고 기겁게 사실과 부딪쳐서 알아 보겠다는 사람들을 살펴 봅시다. 내가 이렇게 분류하는 이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갖고 유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들은 다른 어느 목표에 도전할 때와 마찬가지로 치밀하고 끈기있게 종교적인 깨달음과 실제 체험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성장을 목표로 하며 또 실제로 성장에 선행되는 원리와 율법을 선포하여 성장합니다. 물론 이들은 기도가 단순한 약속이나 확신이 아니고 영적으로 능숙한 분과의 교제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의 의사와 요구와 영합하여 권위를 행사해야 함을 인정합니다. 이들은 철부지 시절의 신앙에서 힘든 발걸음을 옮겨 완숙한 성인의 돌이킴으로 향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이 피난처요 또한 사회 참여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들은 시편 23편에 기록된 대로의 신앙에 대한 거룩한 면을 인정합니다. 주는 옛 선지자가 말한대로 환난의 날에 지주가 되십니다. 신앙의 또 다른 면은 가서 모든 나라를 가르치라고 하신 구세주가 주신 확증인 것입니다. (마태 27 : 19참조)

체험을 통하여 배우라고 하신 경험적 방법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신 구세주의 말씀에 은연 중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마태 7 : 7—11 참조) 이와 비슷한 예로 유대인들이 그의 지혜를 보고 놀랐을 때 주는 그의 지혜가 그의 것이 아니고 그를 보내신 이의 것이었음을 전하였고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교리를 알게 될 것이다”고 덧붙여 강조하셨습니다.(요한 7 : 14—17참조). 근대 계시에 나타난 약속은 보다 구체적인 것으로 종교적인 활동을 통하여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모두 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이는 만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의 충만하심을 받을 것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서 영광을 누릴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너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리라.”

(요한 1 : 1, 20)

이상의 모든 약속은 행위를 바탕으로 하며 행위 그 자체는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로이 자기의 길을 선택하여 성인으로서의 돌이킴을 이루겠다는 의지는 신앙의 거부나 과거지사배 배우는 일로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며 체험을 통하여 얻어진 영적인 능력이 자유로이 활용되어 의의 원리를 조정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자기를 절제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절제는 평생의 과업입니다. 인생의 한 과정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 다음 과정을 위한 준비요 서곡입니다.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세를 늘 갖추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믿는 자가 되므로서 배우기도 그치고 체험하기도 그쳐야 함이 옳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완숙해지는 돌이킴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도 고치지 못한, 죽어 너머진 아들을 놓고 간청하는 그 아이 아버지의 호소 가운데서 찾아 봅시다. 아이를 예수 앞에 데려와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을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마가 9 : 23—25 참조)

우리들 대부분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돌이킴이란 고정된 궁극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으나 장차는 더욱 큰 신앙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루지 못한 부분은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한 것이며 바로 도움이 필요한 면입니다.

신앙은 아직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에 참여하여 그 의미와 목적을 깨달도록 안내해 줍니다. 마침내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과 우리들의 참 관계를 깨닫게 될 것이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돌이킴으로의 길을 치닫게 될 것입니다. ○

4) 칸트 1724—1804 독일 철학자

아세아에 있어서의 말일성도 군인의 영향

더블유. 브렌드 하디

● 최근 월남전에 두번째로 종군하게 된 대제사의 직분을 가진 헬리콥터 전투대의 대장이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좌우간 우리가 가졌던 대회로 인하여 나는 적군이거나 아군이거나 간에 이들에 대하여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절박한 애착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들 모두에게 사망이 아닌 생명의 복음의 진리를 전할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짧은 글귀 속에서 우리는 아세아에 주둔한 우리 말일성도 군인의 감정과 영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눈에 덮힌 대한민국의 전선,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그리고 더운 열기가 솟아 오르는 월남의 밀림 지대, 타이의 넓은 접경, 이러한 여러 처소에 우리 우방의 군인이 주둔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말일성도의 수는 6,000~7,000이나 된다고 한다.

이들의 헌신적인 수고는 역사를 통하여 볼 때 늘 개척자의 선두를 지키는 자로서의 것이었으며 조직된 지부나 지방부의 발전과 비교한다면 늘 엘리야의 역할 같은 것이었다. 일본의 교회를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수천 말일성도 군인과 가족이 이곳을 찾아 결국은 일본에서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게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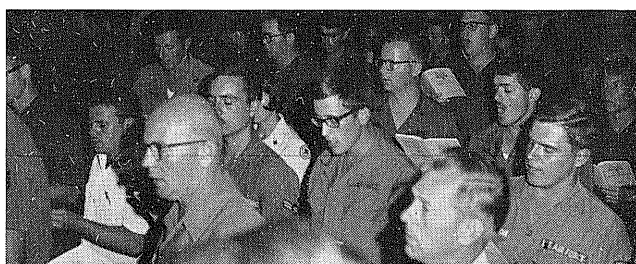
이와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교회도 탄생을 보았다. 한국 동란에 참전했던 말일성도 군인들이 열의와 지혜의 국민인 한국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한 것이다. 태고의 대륙인 아세아에 있어서의 성공적인 선교 사업의 길은 이와같이 마련된 것이다. 새로운 선교부, 필리핀 선교

부 그밖에도 현재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는 대부분의 선교부가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다. 대만의 경우도 여기 저기 흩어진 몇몇 말일성도 군인이 용기와 신앙과 힘을 함께 모아 이곳에서의 선교 사업을 시작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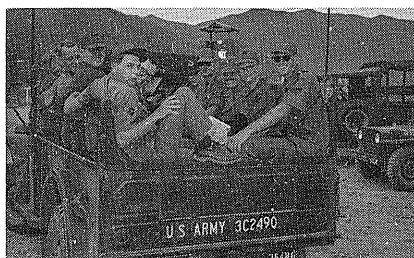
아세아 전역을 통털어 이들은 참으로 힘든 일을 담당하였다. 처음에는 준비의 과정을, 차차 안정된 후에는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역 지도자를 훈련하였다. 타이의 경우도 군인들의 요청으로 선교사의 파견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와같은 일이 초토화된 월남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말일성도 군인이 민간인을 접하는 기회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나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영향력이 전해진 것이다. 현재 사이곤에 조직된 지부에는 월남 민간인 60여명과 미군 40 여명이 참석하고 있으며 그 수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월남 전쟁의 계속으로 인하여 월남인은 자유에 대한 절실한 요구를 날로 느끼게 되었으며 이로써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이들에게 전할 기회는 더욱 크게 마련된 것이다. 현재는 교회 책자가 월남어로도 번역되고 있어 선교 사업에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

말일성도 군인이 아세아 지역의 나라와 그 국민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무한하다고 할 수도 있다. 군 복무와 군 복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일이 이들 말일성도 군인을 하나로 묶어 당면 과제와 겨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였다. 가족이나 가정의 영향력 같은 것은 먼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군복을 입은 젊은이들은 안이한 고향에서의 교회 참



좌: 월남 남부 지방부장이 멀리 떨어진 군인 구역을 방문하기 위하여 헬리콥터를 타고 있다. 사진은 월남에서 지방대에 참석한 군인 대회를 마치고 전선으로 돌아가는 모습.



여 같은 추억을 덮어 두고 절박한 마당에서 섬길 주인을 찾아야 했다. 다행스럽게도 험한 생사의 기로를 넘기는 동안 이들 젊은이의 영적인 생명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고 간증과 향상하겠다는 의욕이 더욱 강하게 되었다. 이들이 자기를 의식하고 복음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이를 남과도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새로운 세계의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이들은 삶의 지표를 찾았고 목표는 이로써 설정된 것이다. 임무는 막중하고 자기를 발견한 위치가 안이한 곳이 되지는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아들로써의 자기들의 본분을 더욱 성실하게 이행하였다.

월남에서 모임을 갖게 될 때 마다 아내와 가족과 이웃에 대한 감사와 보다 훌륭한 남편과 아빠가 되겠다는 요지의 발언이나 간증이 빠지는 때가 없었다. 이전에는 50% 정도의 성도 노릇을 하던 젊은이가 군인이 된 이후로 성도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군복무를 마친 다음에는 선교사로서 일할 결심으로 선교 비용을 저축하고 있는 것도 보았다. 일단 범법한 자도 주께 회개하고 다시 축복을 내려 달라고 간구하기도 한다. 전쟁터에서 벗을 잃은 자는 자기의 삶에 대하여 또 다른 사명감을 갖는다. 전쟁이란 추하고 불행하고 허무한 낭비이지만 전쟁에서 겪는 슬픔이 인간의 마음을 겸허하게 하여 보다 훌륭한 자아를 발견하게 하며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저속하고 파렴치한 영역을 탈피하게 한다.

군대에는 여러 곳에 지부가 조직되어 있고 비독립 지부도 허다하다. 월남에만 해도 60~70개의 지부가 군인 지방부를 이루고 있다. 지방부마다 지방부장단과 지방부 평의회가 있고 이러한 조직에서 엿보이는 지도자의 구성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느낀다. 역원들 가

운에는 이전에 혹은 감독으로, 스테이크 부장단의 일원으로, 고등 평의원으로 훌륭한 경험을 쌓은 분들이 많다. 지방부의 평의원이 각 지부와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가능한 지역에서는 가정 복음 교육이 이행되고 적의 공격이 감행된 지역은 별도로 방문한다. 신권 승진이라던가 신전 추천서 발급도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아세아 지역에 주둔한 군인 형제들은 모두 활동적으로 봉사할 기회를 얻는다.

아세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에 관하여 이야기 할 때 이들이 교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을 결코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아세아 지역에 이미 건축되었거나 현재 건축되고 있는 예배당으로서 군인들의 경제적 지원 및 노동의 지원을 받지 않은 곳이 없을 것이다. 이들의 협조는 도저히 훌륭한 예배당을 가질 수 없는 빈촌의 성도들에게 훌륭한 예배의 처소를 마련해 준다.

월남에서는 한달 동안의 전투 수당을 고스란히 건축 기금과 선교사 기금으로 바치는 군인이 허다하다. 이와같은 이들의 노력과 작업이 전 아세아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물질적인 원조와 기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개인 개인의 사랑과 희생의 봉사로서 이들 말일성도 군인은 오늘날의 교회의 활동을 돕고 내일을 준비하게 하고 있다.

따파고난의 전쟁의 밀림에서 갓 돌아온 이들 젊은이와 함께 앉아 이들이 부르는 “행복한 날 여행이 끝나는 그 날이 오리니……”를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면 복음을 생활 하므로써 얻을 수 있는 위안과 확신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한다. 이들 작은 영웅이 “……모든 것 잘 되리”를 힘차게 함창할 때 우리는 거기서 이들의 간증 소리를 전해 듣는다. ○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만국 박람회, 물론관에서 상영할 영화 “행복의 추구”의 장면이다. 일본 배우들의 출연으로 제작된 이 영화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해주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이곳에는 왜 왔는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이 화평과 흥만함 삶의 길잡이가 된다고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원리를

매리온 디. 행스 장로

12사도 보조, 이라 청소년편 편집인

● “정말 전쟁”은 젊은이들에게 삶의 참 의미를 가르치고 이들을 보다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도록 인도하는 일이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그 일선에서 이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일이다. 젊은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게 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일하게 하는 것을 돕고자 교회는 여러 분야의 인재와 원리와 활동을 도입하였다.

“최근에 어떤 편집인의 글에 이런 것이 있었다.

물론들은 모든 종교가 다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젊은이를 다스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의 젊은이는 진지한 태도로 신앙에 임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젊은이를 잘 다스리는 최상의 비결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젊은이에게 무엇을 요망하며 또 젊은이를 어떻게 돕는가?

교회는 젊은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와 그들의 헌신적인 사랑의 은사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풍성하고 유익하고 선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다.

참되고 값진 삶이란?

교회는 승영을 향하여 발전하며 도달이 가능한 목

표를 향해서 분투 노력하는 삶이 참되고 값진 삶이라고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값진 삶이란 또한 영적인 것, 높은 인격 표준, 훈련된 이성, 육체적인 단련과 건강,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포함한 모든 타인에 대한 의무감 등으로 조화된 삶을 뜻한다.

교회는 이 모든 것을 이루고 갖추는데 필요한 힘을 갖고 있으며, 지도력을 기르고 아름답고 유익한 것을 발전시키며, 현명한 대인 관계를 증진시키고, 행복한 결혼, 다정한 가족의 유대, 선하고 바른 판단과 이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힘도 갖고 있다.

모험이란?

젊은이의 생활은 그 나름의 개성이 있으며 어쩔 수 없이 혼잡한 이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된다.

키이즈¹⁾는 그리스의 신화를 그린 그의 저서의 서문에 이렇게 기록하였다.

“소년의 꿈은 건강하다. 아울러 성장한 성인의 꿈도 건강한 것이다. 그러나 인생에는 공백기도 있으며 성품과 영혼이 흔들리는 이 기간에 아름답지 못한 일이 발생한다.”

1) 존 키이즈—영국의 시인. 1795년 10월 31일 영국 런던 출생. 1821년 2월 23일 이태리 로마에서 사망.

시간이란 극히 퇴폐적이고 무질서하고 파괴적인, 그래서 걸음으로는 그럴듯 하면서도 사실은 파괴적인 비판의 양상을 띄우기도 하고 반면에 보다 높은 도덕과 고상한 삶에의 발돋움을 위한 의욕적이고 이치적인 비판의 태세를 갖추기도 하는 것이다. 젊은이는 이러한 두 갈래 길에서 그릇된 것을 배격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려 할 때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젊은이는 마땅히 현명하게 선택하고 충실하게 일하여 훌륭한 성품과 인격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이 무거운 책임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는가?

대답은 원리라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이러한 원리를 바로 배워 실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아울러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어른들의 현명한 가르침도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교회는 또한 젊은이들이 신앙을 기르고 연대 의식을 가지며 봉사하겠다는 결의를 갖고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가운데 자기가 바라는 인간상을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참된 원리가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여 활발하게 움직일 때 비극의 삼형제, 공허와 고독과 슬픔은 처리될 수도 있으며 제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원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의 영의 아버지”²⁾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원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서 인간은 이전에도 살았고 남을 사랑했으며 전세에서 자유로이 할 바를 선택하였다. 또한 “천국 전쟁”³⁾ 때에는 구세주의 편에 섰고 사명과 자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온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며 봉사할 것으로 작정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다른 모든 아들 딸과 더불어 영원히 살며 기쁨을 누릴 것이다. 지상에 사는 동안 인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다. 아울러 신앙과 복종과 인내와 원하는 것을 배우고 이행하고 사랑하는 등의 모든 경험을 이곳에서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거룩하시며 영원하시고 관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안전을 원하시고 우리

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시며 우리가 구하는 바에 응답하시고 구세주를 보내사 공의를 자비로 웃입히시며 우리의 회개와 속죄를 가능하게 하셨다.

삶은 영원하고 보람있는 것

삶은 영원하고, 우리의 지상 생활은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이다. 물론 개인에게는 인격과 개성이 있다. 우리가 이곳에서 얻는 지적인 것과 영적인 것 모두를 우리는 죽음을 넘어 영원에 까지 갖고 간다. 그러므로 인생은 학교 교실이며, 놀이터도 기량을 겨루는 운동장도 아닌 것이다. 우리는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신앙과 순종을 배우고 영적인 삶을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통이다. 기도는 그 교통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다.

그리스도와 인간

하나님의 “일과 영광”은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⁴⁾이다. 구원은 이중으로 달린 문을 열고 들어가 우리가 쟁취하는 보상이다. 그리스도가 열쇠를 돌리셨다. 그는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다. 또 하나의 열쇠는 우리가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가 마련하신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열쇠를 돌려야 한다. 그의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광의 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십일조, 금식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것이다. 십일조와 헌물은 우리가 허가 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다시 하나님의 창고에 돌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바치라고 가르치신다. 우리는 이해하고 맡은 것을 감당하고 새롭게 하고 참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한다. 십일조는 영적인 원리이다. 물론 젊은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얻는 모든 것의 십일조를 바친다.

봉 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나 걸만 호사스런 봉사로는 만족하지 않으신다. 내용이 없는 사랑이란 전혀 무의미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참 사랑을 구현시킬 수 있는 방

2) 히브리서 12장 9절을 보라.

3) 요한 계시록 12장 7절을 보라.

4) 모세서 1장 39절

편, 곧 봉사함으로써 그의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고상하고 거룩하며 이기심을 버리라고 명하셨다. 구세주는 우리의 표준이시며 사마리아인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교회의 젊은이들에게는 참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수 없이 주어진다.

죄사함

방랑자가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던가 죄인이 자기의 죄를 뉘우칠 때 하늘에는 기쁨이요 지상에서도 주를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기쁨이 올 것이다. 거기에는 비판이나 저주나 나무람이 있을 수 없다. 거부나 야유도 있을 수 없으며 방탕한 아들이 다시 돌아 온 것을 반기는 기쁨이 있을 뿐이다.

데이트와 결혼

하나님과 인간과 사랑이 영원한 것과 마찬가지로 결혼이란 영원한 것이며 가정도 영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데이트를 할 때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상호간의 예절도 바르게 지켜야 한다. 영원한 결혼이란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마땅히 얻게 되는 열매이며, 이로써 풍성할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혼 법칙이다. 물문의 젊은이들은 “이 세상과 영원을” 위한 신전 결혼식을 갖는다.

권능

하나님께서서는 그가 친히 택하여 뽑으신 사람들에게 그를 대리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성임하였느니라”⁵⁾는 말씀에 의하건데 하나님을 택하는 자가 임의로 이 권능을 얻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 생활하며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대행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다.

물문 젊은이는 12세가 되면 그 때부터 신권의 권능을 받아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기르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차차 연륜을 쌓고 경험을 쌓으므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원리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에 있어서 그의 거룩하신 선지자를 통하여 다

른 많은 원리를 인간에게 전하여 주셨다. 물문의 젊은이에게 있어서 종교는 자기 “내부의 영적인 힘”을 정리할 수 있는 무기이다. 이들은 참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다.

선교사업

물문의 젊은이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형제로서 일한다. 물문의 젊은이는 자기가 아는 바 참되고 선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다. 물문의 젊은이는 자기 생애의 2년을 외국이나 고국이나, 집에서 멀거나 가깝거나 자기가 배치되는 어디에서든지 자기가 아는 바 진리를 복음 선교사로서 전도하고 가르치며 봉사한다. 이러한 선교사업도 자기가 스스로 그 비용을 준비하며 가족이나 친지가 일부를 협조해 주기도 한다.

신체적인 조건

신체적인 건강은 온전한 삶을 사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며 물문의 젊은이들은 어려서부터 자기 건강을 지키고 힘을 기르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영과 육이 인간의 영혼이니라⁶⁾”는 말씀을 바탕으로 물문의 젊은이는 자기의 몸이 깨끗한 그의 영혼의 거소임을 믿어 원리에 입각하여 자기를 지킨다. 그리하여 1833년 주님께서 선지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을 건강의 법으로 따른다.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알콜성 음료와 담배와 기타 유독성 음식을 금하도록 지시하시며 이에 따를 때 신체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 또한 정신적인 축복도 함께 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

교회는 젊은이에게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할 것을 권고하며 때로는 교회의 복지 농장에 혹은 통조림 공장에 이들을 불러 일하게 하며 그 산물을 가난한 자에게 전한다.

교회는 스포츠 활동 및 경기를 권장하고 관리하며 캠핑, 무용 등 건전한 오락을 강조한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교회의 행사를 “영적인 오락”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교회는 유능한 지도자를 세워 높은 수준의 활동으로 젊은이들을 안내한다.

물문의 젊은이는 용기와 헌신으로 자기가 거하는 곳의 부름에 응하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2,000여년전 암몬의 젊은 군대, 그 아들들의 이야기는 오늘날의 물문 청년의 좋은 표상이기도 하다.

“저들은 모두 젊어, 뛰어나게 용맹스럽고 기운차며 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상 진실하며 무엇을 하든지

5) 요한복음 15장 16절

6) 교리와 성약 88편 15절

말은 바에 충실하였고……”(앨 53 : 20)

도 덕

책임 있는 종교적인 자세로 인생을 대할 때 육신이라든지, 결혼, 가정과 더불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젊은이들은 높은 도덕의 표준을 크게 강조한다.

이들은 깨끗하고 건전한 삶을 살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실제로 교회에서는 모든 보조조직을 통하여 연령의 고하를 막론하고 순결과 정숙과 성실을 가르친다. 아주 어린 성도에게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앙개조 암기를 지시한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인에게의 선행을 믿는다. 진실로 바울의 훈계를 따르다 할 수 있으니……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

교 육

경전을 통해서 물몬의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며 이로써 “탐구와 신앙으로 학문에 열중”하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예지는 무엇이라도 다 부활할 때 우리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만일 어느 사람이 근면하고 순종심이 강하여 다른 사람보다 한층 많은 지식과 예지를 얻었으면 오는 세상에서 그 만큼의 유익을 얻으리라”(교성 130 : 18—19) 젊은이들을 교육시키고 단련시키며 지성을 닦아주도록 해야한다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단과 대학, 실업학교, 종합대학등 교회는 여러 나라에 참으로 많은 학교를 세워왔다. 교회는 여러 고등학교에 부설 학원을 두었고 대학교에는 보다 높은 수준의 학원을 두어 온전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정신적이고,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얻도록 하였다.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는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 높은 이념을 갖고자 노력할 것이다.

기쁨

물몬은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러한 것은 바르고 밝게 살때에 얻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기쁨은 파피나 혼란에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피상 망측한 옷차림이나 긴 머리칼이나 이상한 행동으로도 얻지 못한다. 기쁨을 원할진대 가족간의 유대나 친구 그밖의 사람들과

의 관계도 건전해야 하고 따뜻해야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교회의 젊은이들은 국적이나 혈통이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친절과 정성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는다. 교회는 아울러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나라에 봉사해야 함을 강조하며 공중 도덕이나 정치에 대하여도 열의와 존경을 갖는다.

교회 회원에게 있어서 긴밀하고 두터운 가족관계는 극히 중요한 것이다. 종교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야 한다. 가정에서는 정규적으로 가정의 밤 순서를 가지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 예배에 참여하며, 집안에서 하는 일도 서로서로 분담한다. 또한 가정에서의 경사를 함께 즐기고, 놀이라든가, 관습과 전통에 얽힌 행사도 함께 한다. 뿐만 아니라 고상하고 이상적인 놀이도 함께 하는 것이다. 비록 직업과 교육이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고 또 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모들은 자녀에게 물질의 추구보다는 행복한 상호 유대와 경험을 갖도록 애쓰고 있다.

지도력

우리는 행하므로써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며 물몬의 젊은 이들은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많이 얻게 된다. 교회에는 일을 전담하는 직업적인 역원이 없으며 따라서 일을 맡아야 하는 책임은 회원에게로 넘어간다. 교회의 젊은이는 자주 이야기해야 하고 지도자와 의견을 나누며 스스로 조직하고 정리하고 계획하고 가르치고 노래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들은 음악회나 연극이나 변론 대회에 직접 참여한다. 이들은 모임을 주관하고 사무를 처리한다. 이러한 훈련과 경험을 쌓는 동안 이들은 참으로 유능한 지도자로서 성장하게 되며, 자연히 교회는 높은 수준에서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물몬의 젊은이가 올바른 원리를 배우는 까닭에 이들이 집을 떠나 학교에 있든지, 선교 사업을 하든지, 객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든지 간에 자기를 바로 가누고 주님과 그 교회에서 가깝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와 기타 많은 다른 원리를 근거로 젊은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만들어 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는 허리띠를 조이게 하는 힘과 젊은이를 교회와 가깝게 연결하는 데 역사한 힘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여주리라. —마태 6:33—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리드 에이치. 브렛포드

●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복잡하며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많습니다. 사회는 고도로 분화하였으며 여러 가지 활
동과 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사회
가 복잡해 지므로써 오히려 우리의 삶을 살지게 하는 기회
가 많아 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
에 많은 사람들은 농촌 생활보다는 도회지 생활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조직의 다양화로 인한 폭 넓은 성장과 산
체험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는 사회 구성원에게 의미 심장한 문
제를 제기합니다. 사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 시민이 능히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활동 모
두를 한번에는 다 정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
다. 그러므로 자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 됩니다. 어떤
목표를 먼저 달성해야 할 것인가? 어떤 조직이 가장 중요
한가? 이러한 의문이 당연할 수 밖에 없는 까닭은 인간은
누구나 시간과 능력과 힘의 제한을 받는 까닭입니다.

우리에게 제시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
든 집단에 다 참여하며 모든 활동에 다 참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우리가 모두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중
에는 우리의 발전이나 우리가 세운 목표에 도달하는 일에
전혀 아무 것도 기여하지 않는 것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
므로 우리가 달성해야 할 일의 우선 순위를 정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 요강

기본 요강을 알아두면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구
체적인 작업을 할 때 크게 도움이 됩니다. 다음 사항을 연
구해 봅시다. 예수가 그의 지상 과제를 거의 끝내고 십자
가에 달리게 되었을 즈음입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
지께 간구하면서 그가 행한 일의 목적을 낱낱이 밝혔습니
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니이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아오니…… 이는 우리
가 하나가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
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
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
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

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 17:17, 19, 22—24)

나는 구세주의 말씀을 내 나름으로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들이 우리와 같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을 느끼리라. 아울러 우리가 갖고 있는 의로
운 권세를 갖게 되리라. 저들은 또한 우리가 저희를 아끼듯
서로를 아낄 것이며 저들이 지닌 은사와 능력을 서로 나눌
것이니 지상에서 사는 동안 서로 값진 경험을 갖도록 해 줄
것이니라. 서로 협조하고 함께 조화하므로써 저들은 홀로
노력할 때보다 더욱 온전하게 발전할 것이며 마침내는 우
리의 면전에서 살 수 있을만큼 함당하게 되리라.”

이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목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계신 곳에서 함께 여생을 누리자면 우리는
두가지 중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키므로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겠
다는 약속을 우리 스스로와 주님께 굳게 약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와같은 약속을 한 다음에 하나님
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필자는
수백명의 성도에게 교회의 기본 경건인 성경과 물몬경, 교
리와 성약, 값진 진주를 모두 읽었느냐고 물은 일이 있습
니다. 구약을 읽었다는 사람은 13 퍼센트였고 가장 많은 사
람이 읽은 것으로 된 물몬경의 경우는 49퍼센트였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원리를 공부하겠다는 결심은
곧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
님께서는 충실한 자에게는 규칙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실 것이요 나도 너희를 시험하여 이로써 너희를 증험하
리라. ……(교성 98:12) 하나님으로부터 빛과 이해를 받으
므로써 우리는 평화와 안전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구체적인 생활에의 응용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무엇을 먼저 이행해야 할 것인
가를 실제로 행동에 연결시켜야 합니다. 학생이 부정의 방
법으로 시험을 치루었을 경우 그것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오
히려 다른 사람보다 좋은 성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
나 개인의 존엄성이라던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신뢰는 시험
지에 나타난 성적보다는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젊은이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많은 “약”의 일
종을 복용했다 하더라도 결국 이 젊은이에게는 거룩한 영
이 거하는 신전으로서 그의 몸을 다스림에 있어서 세상의
약보다 더욱 효과적인 약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쓰면 우리의
일상 목표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
나 돈이 인간 생활의 궁극의 목표가 될 때 그것은 바울이



말한 대로 “커다란 악의 뿌리”가 되고 맙니다. (더모테 전서 6:10)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므로써” 남을 소홀히 대접하거나 보다 중요한 소망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하게 되며 이는 다음의 일화에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패혹과 악마 *

틀스토이 저 “사람은 땅을 얼마큼이나 원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땅만 많이 갖고 있으면 악마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악마는 “좋다. 우리 어디 한번 내기를 해보자. 내가 네게 땅은 얼마든지 주마 그 대신 그 땅으로 너를 내 손아귀에 넣어 보리라.”고 했습니다.

하루는 땅을 원하는 패혹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몽매간에 원하던 광대한 토지를 하루에 얻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땅 주인은 패혹에게 천 루블을 주면 하루 어찌 땅을 주겠노라고 했습니다.” 패혹은 이를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루치라뇨?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측정법인가요? 도대체 몇 정보를 말하는 거지요?”

그러자 주인은 “몇 정보가 될지는 우리도 모르오. 그저 하루어치로 파는데 말하자면 하루 동안에 당신의 발이 닿는 곳은 모두 당신의 것이 되오. 그만큼에 천 루블이란 말이요.”라고 말했습니다.

패혹은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동안에라면 펍 넓은 땅이 되겠는걸요.”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웃었습니다.

“모두 당신의 것이 되지요. 그러나 한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루 안에 출발점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돈만 날리는 거요.....”

패혹은 만족해 했습니다. 그는 새벽 일찌기 출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만 저만한 크기가 아닐게다. 아주 크게 장만해야지. 하루에 백 오십리는 걸을 수 있으니까.”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온밤을 뜬 눈으로 새우다 싶이 한채 이튿 날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날 약속된 자리에서 땅 주인을 만나 천 루블을 지불한 다음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지만 몇 시간이 지나자 아주 기진했습니다. 날은 뜨거웠고 변변히 쉴 곳도 없었습니다. “한 시간만 고생하면 평생을 안락하게”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며 열심히 땅 주변을 걸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한참동안 걸다 보니까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야 해가지기 전에 출발점으로 돌아 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아주 비옥하게 보이는 땅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노른 자위를 놓칠 수야 없지.” 그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그쪽으로 길을 계속했습니다.

그리하여 비옥해 보이는 그 땅을 자기 것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는 멈칫 멈춰서서 지는 해를 바라다 보았고 석양

*레오 톨스토이. 러시아 소설가. 도덕 철학자. 사회 개혁자. 1828-1910

에 비끼는 해가 급히 내려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큰일 났구나! 내가 욕심을 너무 부리지나 않았는지?” 그의 가슴은 대장간의 풀무처럼 펄떡 거렸고 심장은 마치 망치질 하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리는 전혀 남의 것처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쳐서 꼭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사력을 다하여 자기를 가누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일몰 직전에 땅 주인과 그의 일행이 기다리고 있는 출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패흠은 다리를 가누지 못한채 쓰러졌습니다.

“허 그것참 장한 사람인걸! 엄청난 땅을 벌었다 말야!” 땅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흠의 중들이 달려와 패흠을 부축해 일으키려 했으나 패흠은 이미 입으로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습니다.

그의 종은 삽을 꺼내 패흠이 오래 머물 수 있는 무덤을 팠습니다.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고 있던 땅도 모두 죽은 그가 원하던 것이었다.

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서 나오는 것은 인간의 음식과 의복으로 사용하고 풍성히 가질 수 있도록 정하신 것이니라.”(교성 49:19)

개인의 요구를 배우어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집이야말로 이상적인 곳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자녀가 원하는 행복이라던가 기타 요구 사항은 대체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음 이야기에 소개되는 여인도 배웠습니다.

노래의 집 *

나는 프레드의 턱반기를 매어주고 나서 오렌지 주스 한 잔, 죽 한 그릇 그리고 목장 우유 한 컵을 그 앞에 놓아 주었다. 나는 늘 훌륭한 어머니에게서 장차 훌륭한 빛을 던질 자녀가 자라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프레드는 충실하게 마치 의무를 이행하듯이 제 몫을 다 먹고는 걸상에서 내려왔다.

“인제 지미 엄마한테로 가도 돼요?”하고 프레드가 물었다.

“프레드야! 넌 어제도 그집에서 놀았고 그제도 그집엘 가지 않았니? 이제 지미를 이리 데려오렴.” 나는 이렇게 제의했다.

“아침 그애가 오려고 하질 않는 걸요” 여섯 살 짜리 프레드는 좀 어른스럽게 말했다. “엄마, 오늘도 갈래요.”

“넌 어찌 우리집 보다는 지미네 집을 더 좋아하니?” 나는 이렇게 물으면서 갑자기 프레드 뿐만 아니라 그 또래의 아이들이 모두 지미네 집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냈다.

“왜냐구요? 그건 저- 지미네 집이 노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프레드는 좀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노래의 집이라구?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저-” 프레드는 잠시 난색을 보이다가 설명하기 어렵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다. “지미 엄마는 바느질을 하면서도 콧노래를 하지, 부엌 일을 하는 애니는 케키를 자르면서 노래를 하지, 지미 아빠는 집에 돌아올 때는 휘파람을 불지.” 지미는 잠시 얘기를 그쳤다. “또 지미네 집은 커튼을 활짝 열어 놓구, 창가엔 꽃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두 지미네 집을 좋아하는 거야.”

“프레드야 그럼 가서 놀렴” 나는 얼른 대답을 해주었다. 프레드를 얼른 내보내고 생각을 좀 하고 싶었던 거다.

나는 새삼스럽게 주변을 둘러 보았다. 모두들 멋지게 꾸며 놓았다고 하지 않는가? 고전미를 풍기는 웅단, 그게 얼마나 비싼 세를 내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빈틈없이 들어선 가구, 자동차도 월부로 고급을 사지 않았는가. 지금은 그 대금을 내는 중이고, 아마 그래서 프레드의 아빠는 집으로 들어 오면서 휘파람을 불지 않는 것인지도 몰라.

부질없는 것은 치우고

나는 모자를 쓰고 토요일 아침 10시가 바쁜 시간일줄 알면서도 지미네 집으로 갔다. 버튼 여사는 한참 바쁜 오전인데도 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난 그가 한번도 바쁘게 허둥지둥 하는 걸 보지 못했다. 그는 목에 수건을 두른채로 나를 맞았다.

“아이구 어서 들어 오세요, 막 거실 청소를 끝내는 참입니다. 방해라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일운을 벗어 놓고 바로 나올테니 좀 앉아 주세요.”

나는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좀 살펴보았다. 웅단은 거의 다 닳은 것이었다. 커튼도 새것은 아니었으나 깨끗하게 한 쪽으로 걸어 묶어 두었다. 가구는 모두 곱했지만 깨끗하고 윤이 나도록 손질을 새로 했다. 산뜻한 덩개로 장식된 테이블에는 최근의 잡지가 몇권 놓여 있었다. 창에는 담장이 덩쿨이 손을 뻗히고 햇살이 드는 곳에 걸린 새집에서는 새 소리가 울려 나왔다. 가정다운 가정, 구수한 집 그것이 그곳의 분위기였다.

부엌 문은 열려 있었고 꼬마 제리가 깨끗한 천을 깐 걸상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애기는 뽀족한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애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버튼 부인은 싱글싱글 웃으면서 방으로 들어왔다.

“늘 바쁘신 분이 이렇게 우리 집을 방문하셨을 때에는 뭐 그럴듯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버튼 부인은 역시 웃으며 물었다.

“네” 나는 좀 어색하게 대답했다.

“저 노래의 집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보러 왔어요.”

버튼 부인은 무척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눈치였다.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프레드가 그러는 걸요. 이 집이 노래의 집이라서 늘 오고 싶다고요. 나는 이제야 그 애의 얘기를 이해하기 시작

*메이 울간 포터 작. 미국 와이오밍주 교육국이 어린이 복지를 위한 책판에서

했어요”

“분에 넘치는 칭찬입니다.” 버튼 부인은 얼굴을 붉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은 맥과는 비교가 되지도 않는 걸요. 모두들 프레드베 집이 제일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집은 노래의 집이 아닌걸요. 버튼 부인, 맥이 어떻게 해서 노래의 집이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씀해 드리지요.” 버튼 부인은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꼭 알고 싶으시다면 말씀 드리지요. 우리 애기 아빠는 수입이 많질 않아요. 아마 큰 돈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사람이 못되는 걸요. 그러니 어느 항목인가를 더 절약해서 깎아야 하지 않겠어요? 결국 쓸데없는 허황된 것은 손에 대지 않기로 했지요. 나는 원래 약하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봐줄 식모가 필요 했지요. 그래야 아이들한테 즐거움을 전할 기력을 차리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을 집에 유치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책, 잡지, 음악 이런 것

들을 생각했어요. 뭐 닳아서 없어지지는 않는 것들이니 부질없는 헛된 것은 아니잖아요? 또 필수적인 것으로는 좋은 음식도 있지요……아이들에게는 아주 간단한 의복을 입혀요……그런데도 생활 필수품만을 지불하고 나면 웬단이나 가구를 살 돈이 남질 않아요……빚지지 않고 살기로 단단히 결심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린 행복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끝냈다.

“잘 알았어요.” 나는 생각에 잠긴채 대답했다. 그리고 프레드와 제리가 구석에서 성냥갑으로 기차를 만들어 밀을 실어 나르며 노는 것을 보았다. 밀을 은방에 흩어 놓고 놓고 있었으나 밀은 깨끗하고 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나의 고전미가 풍긴다는 웬단이 퇴색해 보였다. 나는 커튼을 높히 걸어 올렸다. 그러나 비단 방장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밝질 않았다. 우리 집은 노래의 집이 아니었다. 나는 노래의 집을 만들고 말겠다는 결심을 단단히 하였다. ○

우리에게 표준이 없다면

리차드 엘. 이반스

● 우리들의 주변에는 간절하고도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덕, 사랑, 깨끗하고 존경을 받을 만한 생활 등 이러한 것은 모두 표준, 도덕, 율법 내지는 하나님의 계명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이러한 것을 무시하려는 사람들의 태도에 관계 없이 사실 우리가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자면 위에 열거한 것이 모두 중요한 방편이 됨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참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불행, 인간 존엄성의 파괴, 도덕의 붕괴, 문명의 부패 등도 율법, 표준 도덕이 깨끗하고 존경받을 만한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웅변 이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는 또 다른 예로서, 표준이 없이는 우리의 삶을 바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만일 표준이 없다면 사물에 대한 판단도 불가능하며 선택이나 측정도 불가능 합니다. 또 우리가 표준이나 율법이나 원리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 과연 무엇을 받아 들여야 할지를 알지 못할 것이며 해이한 자세로, 극히 불확실한 자세로 삶에 임하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고, 또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합당한 것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자라나는 새 세대에게

사물을 평가 측정할 수 있는 표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이들에게서 성장과 행복과 안정과 질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단 표준이나 원리나 한계선이나 삶의 질서를 이탈한다면—즉 성과를 옮겨 놓거나 나침판을 치워버린다면—우리는 방향 감각을 상실할 것이며 따라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 인도하거나 우리의 사명을 게을리할 때, 결과적으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타락된 생활을 권장하는 것이요, 선과 행복의 기초를 상실케 하는 것이요, 화평과 소망을 파괴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로써 저들은 암담하고 무거운 삶의 굴레를 쓰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지배할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율법에 좇아 살아야 하며 원리를 따르며 순결, 도덕, 덕성, 도덕적인 행동의 표준을 지켜야 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도 이와 같은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성과나 나침판이나 목표를 표시하는 등 삶의 지표가 없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악함이 결코 행복을 얻지 못한다.”는 간절하고 엄숙한 가르침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 성도의 벗 뒷표지에 실리는 진리의 말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를 따르라

헤이즐 스완슨

● 후란코이스와 젠은 렌데스 농가의 양지바른 부엌 방에서 급히 아침 밥을 먹었습니다. 아빠는 아빠가 떠나기 전에 그들이 청소를 끝마치면 함께 마을에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콘트렐에게 먹이를 줄 수 있지.” 열살난 후란코이스는 그의 여덟살 난 동생 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병아리와 거위를 돌봐야 되고 엄마를 위해 물을 길어야 한다.”

그때 아버지는 작큐 아저씨와 함께 낮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애들아, 작큐 아저씨와 나는 함께 마을엘 꼭 다녀와야 겠는데 너희들이 오늘 아침 아저씨 양들을 돌봐 주어야겠다. 지난 폭풍 이후 목장 하류는 다시 늪같이 되어 버렸거든. 작큐 아저씨는 지난 해처럼 늪 속에 많은 양이 빠져 죽는 것을 보기 원치 않는단다.”

후란코이스는 몹시 실망하였지만, 젠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후란코이스, 화내지마.” 젠은 유쾌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장대말 놀이 시합을 할 수 있는 좋은 날이야.”

후란코이스는 그의 실망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결코 젠처럼 마음 편하게 보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젠은 그런 면에서 엄마를 더욱 많이 닮았습니다. 엄마는 늘 모든 일에 낙심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후란코이스는 어떻게 해야 낙심을 안하고 마음을 상하지 않을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청소를 끝낸 후에 아이들은 밖에서 장대말을 가져왔습니다. 1.65m의 긴 판자로 밑바닥에서 부터 약 1m

되는 곳에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장대말은 발판 위에서 다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끈으로 둘레를 붙들어 매는 가죽 끈이 매어 있습니다.

일찌기 렌데스 지방의 목동과 주민들은 이같은 장대말을 사용했습니다. 한 때는 렌데스의 전역이 늪지대였으나 현명한 농부들은 바다와 모래 언덕의 황폐된 땅을 개간하여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어 늪지대는 말라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렌데스는 살기 좋은 고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마 때가 되면 목장의 낮은 곳 대부분은 물에 잠겨 위험하게 되고 그곳을 배회하는 동물에게 큰 위험을 줍니다.

“목장까지 경주를 하자.” 젠이 외쳤습니다. 그리곤 그는 장대말을 움직여 황새가 걷는 모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두 소년은 가죽 띠를 주의 깊게 감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젠이 외쳤습니다. “자 경주를 하자. 목적지는 목장의 북쪽 봉우리 위 소나무가 있는 곳이야.”

후란코이스는 양을 돌려 보았습니다. 양떼들은 지

난 며칠 동안의 폭풍우가 지난 후의 평온함을 마음껏 포식하려는듯 매우 평화스럽고 조용하게 보였다.

“좋다.” 후란코이스는 찬성했습니다.

“네가 스무 걸음을 앞서 출발해라.” “좋아” 젠은 유쾌하게 대답을 하고 커다랗게 발을 띄어 떠났습니다.

소나무 봉우리에 가까왔을 때 후란코이스는 그의 어린 동생을 따라가기가 어렵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 목장에는 배수로가 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아직도 땅이 완전히 굳어 있지 않았습니다. 젠이 숨을 몰아쉬며 돌아설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는 소리쳤습니다. “후란코이스, 저것봐, 양을!” 후란코이스는 처음 그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앞장선 양은 낮은 목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나머지 양도 그를 따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만약 자기들이 서두르지 않는다면, 모든 양이 그들의 지도자를 따라 오른쪽 늪속으로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두 소년이 뒤돌아 뛰고 있을 때 몇 마리의 양은 벌써 오른쪽 늪속으로 그들의 지도자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늪에 빠진 양이 울며 발버둥치면 칠수록 양은 점점 더 진흙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빨리 와, 젠, 저쪽야! 저기 물려 있는 곳으로 가자!” 동생이 자기의 지시를 따르려고 하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후란코이스는 다른 방향으로 성큼성큼 발을 띄어 놓았습니다. 그는 손뼉을 치며, 고향을 쳤습니다. 이에 놀란 약 50마리의 양이 그의 신호에 따라 그들의 지도자로부터 떠나 안전한 땅으로 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동생이 일을 잘 처리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젠도 역시 약 30마리나 되는 양을 멧있는 솜씨로 돌려 보냈습니다.

후란코이스는 급히 양을 세어 보았습니다. 지도자를 포함한 열 두 마리가 진흙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후란코이스는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목동이란 신뢰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한 마리의 양도 잃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다가 그는 아직까지도 그들이 장대말 위에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대말을 사용하여 늪 속으로 들어가서 한마리씩 밖으로 나르면 되지 않을까!

“젠, 나머지 양을 소나무 언덕으로 데리고 가라.”

“다른 양은?” 젠의 목소리는 떨렸고 위태롭게 된 양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공포에 질린듯 했습니다.

“내말대로 해.” 후란코이스는 말했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돌아서서 늪 속으로 가만히 들어갔습니다. 그의

장대말은 그가 걸을 때마다 진흙 속으로 깊숙히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대말 위에 안전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지도자에게 이르렀을 때 그는 몸을 꾸부려 양을 구출하려 애썼지만 장대말을 신고는 충분히 몸을 굽힐 수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장대말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가 꾸부려 가죽 끈을 풀렀을 때, 오른쪽 장대말이 진흙 속으로 미끌어져 머리가 늪 속으로 빠졌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얼굴에 묻은 진흙을 흔들며 떨면서 끈을 잡아 당겼습니다. 풀어진 장대말을 늪위에 두개의 판자같이 놓았고, 진흙 늪의 깊이가 무릎 정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무릎 깊이였지만 동물들은 비참하게 버둥거렸습니다.

“후란코이스! 후란코이스! 내가 도와 줄게 나머지는 안전해.” 젠은 늪 밖에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장대말을 한 채로 었습니다. 갑자기, 후란코이



스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네 장대말을 벗어라, 그리고 또 내 것두 가져가.” 후란코이스는 외치면서 구부린채 그의 동생에게 두개의 판자를 던져 주었습니다. “자 네개의 장대말을 함께 묶어!” “됐어 장대말이 진흙 위에 떠있게 되었지. 이렇게 뗏목처럼 해놓고 그 위로 양들을 밀어 낼게.” 그러저럭 만들어 놓은 뗏목 위로 후란코이스는 양들을 밀어 내려고 애썼지만 앞장 선 양은 울부짖고 돌아서며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진흙에서 빠져 나오면 양들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안전한 것을 아는 것처럼 다리를 건드듯 장대말을 가로 질러 뛰었습니다.

“잘했어.” 젠은 말했습니다. “저것봐.” 다른 양들도 나오려고 한다. 빨리해. 내가 잡아 줄테니까.”

마침내 모든 양들은 여행을 끝냈습니다. 후란코이스의 손은 싸늘했고, 눈 밖으로 걸어 나왔을 때 진흙으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피곤하였습니다. 정말이지 그가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안전했습니다.

* * * *

두 소년은 풀이 우거진 비탈진 곳에 앉아 늪 속에 풀처럼 되어버린 그들의 장대말을 닦고 있을 때 목장을 가로 질러서 아버지와 작큐 아저씨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원 세상에!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느냐?” 작큐 아저씨가 외쳤습니다.

젠은 일어나서 일의 경위를 급히 설명했습니다. 젠은 후란코이스보다 어리기는 했지만 사물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는 후란코이스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장대말도 모두 망가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젠이 말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새것처럼 닦아 놓았잖아요!”

아버지와 작큐 아저씨는 웃었습니다. “장대말이 새것처럼 보이는구나.” 작큐 아저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어머니께서 진흙투성이가 된 너희들 하고 양을 보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작큐 아저씨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이거 애들한테 좋은 오후의 일감이 되겠는 걸.”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소리는 준엄했지만,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양을 먼저 닦아 주어야 한다. 훌륭한 목동들은 자기 자신보다 양을 먼저 아끼는 거니까!”

아버지께서는 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후란코이스의 어깨를 만져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조심성을 해야지. 너희가 부주의해서 그랬지만 끝까지 잘 참아냈고 계획한대로 일을 잘 처리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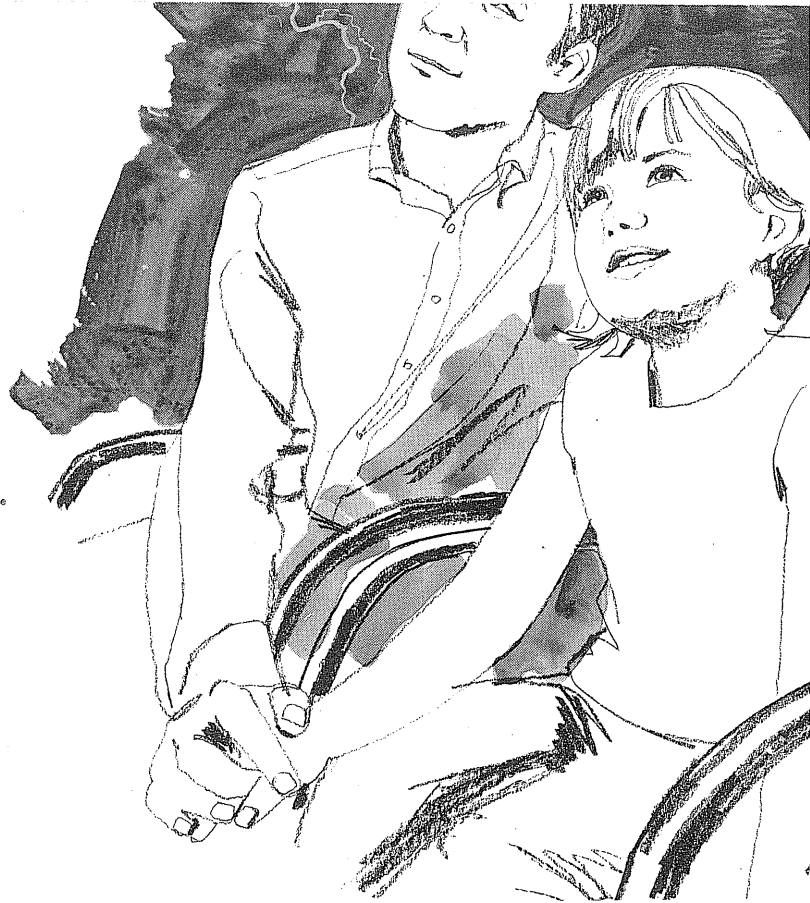


니다. “이런 것이 배우는 방법이다.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말이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양을 두고 어찌 달아날 수 있을까? 후란코이스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농장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렴풋이 깨달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의 장대말을 그의 어깨에 메고 갔지만 의기양양 했습니다. 그것은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흐뭇하게 솟아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참으로 그것은 그의 마음 속에서 거품처럼 솟아오르는 행복감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엄마와 젠이 많이 느꼈었던 그런 느낌인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정말이지 나를듯한 기분이었습니다. ○

폭풍우

루실 리딩의 실화



● 폭풍의 소리는 서남쪽에 울렸다. 라첼은 긴 불기둥이 번쩍어리는 것을 보고 또 낮게 울리는 천둥 소리를 듣고는 몸을 떨었다. 그녀는 홀로 있는 것이 더욱 무서웠다. 엄마나 언니가 집에 있었으면 아마 그들도 함께 무서워는 하겠지만 서로서로 큰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직도 몇 시간을 더 있어야 엄마와 언니가 돌아 올텐데. 라첼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왜 혼자 남았는지? 책을 읽으려고?

급히 움직이는 시커먼 구름을 쳐다 보면서 라첼은 아빠를 생각했다. 폭풍우가 치는 밤이면 아빠는 꼭 창문 앞에 걸상을 대 놓고 밖을 바라보셨고 그럴 때마다 그는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다. 때로는 라첼에게 가까이 와서 함께 밖을 구경하자고 하셨지만 라첼은 그때마다 겁을 냈고, 엄마나 언니에게 아빠가 권하셨을 때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다.

무서운 바람이 나무 가지를 휘어 흔들었다. 이층 창문이 바람에 밀려 큰 소리를 내고 달항 때 라첼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큰 빗방울이 후두둑 거리며 떨어지기 시작할 때 아빠가 차를 집 앞에 세우고 집으로 뛰어 들어 오고 계셨다.

“네가 걱정이 돼서 곧장 이리로 왔다. 오늘 밤엔 걸

상을 아빠와 함께 대 놓고 멋진 장관을 구경하지 않겠니?”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라첼의 가슴은 안도와 평안으로 바뀌었고 아빠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는 아빠가 대 놓은 걸상에 앉아 떨리는 자기 손을 잡아주신 아빠의 손을 꼭 쥐었다. “얼마나 아름다우냐?” 아빠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자연의 불꽃놀이란다. 무서워 한다고 폭풍이 그치는 건 아니잖니? 두려움 없이 놀라운 힘의 천둥 소리를 듣고 번개불을 바라 보노라면 전혀 다른 기쁨을 얻거든. 그리고 이토록 장엄한 우주의 한 모퉁이에 섰다는 깊은 감사도 느끼고…… 사람들이 그저 두려워만 한다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을 생전 못 보게 되겠지!”

아빠의 말씀을 듣고 나서 라첼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온통 천지를 뒤 흔드는 천둥과 번개를 감상했다. 여태까지 그는 한번도 번개치는 하늘을 쳐다본 일이 없었고 오늘처럼 아름다운 구경을 해본 일이 없었다고 생각했다.

아빠의 손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동안 라첼은 평생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가를 생각했고 또 그 아름다움을 찾겠노라고 단단히 결심하였다. 무서운 폭풍우 속에서라도……. ○

관리 감독이

젊은이에게 주는 말씀

직업의 선택

존 에이치. 반덴버그

● 역사를 더듬어 보면 대체로 젊은 이들은 그 조상의 직업을 그대로 이어 받은 예가 많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조상의 생업의 명칭을 그대로 자기들의 성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미국 이름의 스미스라는 이름은 대장쟁이를 뜻하는 블랙 스미스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헌터란 이름은 사냥꾼 헌터의 뜻이므로 그 조상이 사냥꾼이었던 것을 말해 줍니다.

옛날에는 여러 가지 직종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무척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직업에 대한 훈련을 담당하는 곳은 물론 가정이었고 가정에서 부모가 개인 교사 노릇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천 수만의 직종과 일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종과 일감이 많기 때문에 때때로 젊은이들을 당황하게 하거나 혼란에 빠뜨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젊은이들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내게는 어떤 일이 알맞을까?” “대학으로 진학할 것인가, 직업 학교엘 갈 것인가?” “과연 나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까?” 등등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젊은이에게 닥치는, 과연 필생의 직업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에 관한 제의가 아주 어렸을 때 오는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옛 철인 시세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을 사용하라.”고.

사람은 저마다 남이 갖지 않은 특별한 재주를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손재주가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교술이 능란한 사람도 있고 지혜가 총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재주를 종이에 적는다면 끝이 없을 줄 압니다. 개인의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각자 개인의 소질과 재능을 검토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개인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스스로 알아낸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으며 그럴 때에는 부모나 감독이나 학교 지도 선생님의 지도와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며 사실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 단계는 자기가 흥미를 느끼고 또 그러한 일에 종사하므로써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사실 직업을 결정한 다음에는 어떤 뜻에서 인생을 그 일과 씨름해야 하므로 얼만큼 그 일을 좋아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정 생활이나 생활 태도 기타 삶의 모양을 결정짓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직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그 일에 종사하므로써 얻을 수 있는 모두를 얻어 얼만큼 개인의 발전을 쌓느냐 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젯거리라 하겠습니다.

직업 선택과 준비의 셋째 단계는 자기가 선택하는 분야에 관한 훈련을 쌓

는 일입니다. 적어도 현대를 생활하면서 직업에 대한 훈련을 쌓자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이나 학력 및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직업 전선은 무서운 경쟁의 싸움터이며 보다 훌륭한 훈련을 쌓은 자가 보다 나은 직장을 얻을 것입니다. 보다 많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대학교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훌륭한 직장을 보장하는 직업 학교나 실업 훈련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데의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기쁘고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천성으로 타고난 능력이 어떠하던 간에 열심히 일하겠다는 태도나 자세가 허물어 질 때 작업은 권태를 안겨 줄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일에 임하는 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는 시온의 주민을 크게 기뻐하지 아니 하노니, 저들 가운데 게으른 자가 있어 그 자녀들이 죄악중에서 자라나며 영원한 재물을 간절히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저희 눈에 탐욕이 가득함이니라.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되며 또 저들 가운데서 제거되어야 하나니, 그러므로 나의 증 올리버 카우드리는 이 말을 시온의 땅에 전하라.”(교성 68: 31—32)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여성의 가장 큰 본업은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그것을 우리는 모성으로서의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현대를 사는 현명한 여성이라면 어머니로서의 준비 이외에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물론 어머니로서의 일을 버리라는 뜻은 아니고 위급한 때를 대비하여 준비하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훌륭한 주부가 되고 현명한 아내가 되고 지혜로운 어머니가 될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교사나 과학자나 정치가가 아니오,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훌륭한 어머니인 것입니다.

고 맥케이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부름은 어머니의 부름이다. 참된 모성은 예술 중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요 가장 위대한 직업이다. 누가 만일 불후의 명작이 될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낸다면 온 인류를 감동시킬 것이며 또 온 인류의 찬사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건강한 아들 딸을 성공적으로

길러낸 어머니의 공적은 영원 불멸이 될 것이며 그림의 색채가 퇴색하고 책이 모두 없어진 다음에도 오래도록 온 인류의 가장 높은 찬사를 받게 될 것이다.”

끝으로 남녀를 막론하고 젊은이가 알아야 할 사항은 성공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공은 기쁘게 그 값을 지불하고 필요한 모든 준비와 작업을 끝낸 자에게만 옵니다.

끝으로 다시 시세로의 말을 빌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종사할 기회를 얻던지 간에 온 힘을 기울여 일하며 마치 화살을 당길 때처럼 있는 힘을 다하여 일하기 바랍니다...” ○

개인의 참여

호이트 더블유. 브레스터 2세

● 최근 일간 신문에 호텔 방문을 안으로 잠그고 밖으로 나오기를 거부한 연노한 부인의 기사가 실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남득이 가지 않는 이 노 부인의 행동을 의아해 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전모가 밝혀질 때 누구도 이 가련한 작은 여인에 대하여 슬픔같은 아픔의 동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와 같은 처지의 여성이 사실은 이 세상에 많을 것입니다.

마침내는 그 호텔이 폐기 처분을 당하여 건물이 헐리고 말았지만 비극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끝내 알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수천의 다른 여성과 더불어 이 비극의 주인공도 대 도시에 발을 디딘 후 점차 개인을 전혀 무시하는 대중의 일원이 된 다음 집단화된 사회 제도 속에서 그토록 소중한 개인으로서의 가치와 긍지를 상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갈 곳도 없고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하나 없는 가운데 단 하나의 자기 세계, 얼마 후에는 파괴되어 버리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작은 호텔의 작은 방에 스스로를 감금하고 만 것입니다.

지역을 숫자로 표시하고, 개개인의 이름마저 컴퓨터의 기호 집단에 의하여 상실되고, 울타리를 공유한 이웃과 인사를 나누지 않고 살아도 되고, 고속 도로가 지도상의 거리를 단축 시켜주나 인간과 인간의 감정의 통로를 멀리 빼어 놓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유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은혜마저 외면하고 마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제의는 한낱 잠꼬대 같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기억하라.”(교성18:10)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특별한 의미는 여러분이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 보으로써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여러분의 공과반에 참석하는 학생들의 가치가 얼마큼이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은 이름도 낳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복음의 원리를 가르쳐 전하겠다고 몇번이나 시도해 보았습니까? 여러분은 정구적으로 공과반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 대하여 개별적인 친근감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고 있는 반에 참석하는 학생들의 이름을 낱날이 기억합니까? 아니면 그저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서 일주에 몇 시간 정도만 함께하면 된다는 탐탁치 않은 태도로 대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반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 개개인의 가치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공과를 가르칠 때 여러분 개인의 소망과 열의를 쏟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학생들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게 하려면 학생 개개인에 대하여 각별한 책임감있는 교사가 이를 가르쳐야 합니다. 학생이 자기에 대한 교사의 열의와 관심—곧 그저 책임상의 작업으로 공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영적인 복리와 교실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실을 떠나서도 무한한 관심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 교사의 가르침은 수십배의 효과를 거두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교사는 자기와 학생 개개인 간의 관계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개인의 열의를 더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면 교

사와 학생이 모두 크게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1. 반에 참석하는 학생들이 이름과 성을 모두 외우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이름을 바로 발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개성과 특성은 모두 이름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이 정당하게 일컬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에 사람은 독립된 인격인으로서의 자기를 인식하게 되며 자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남들이 알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합당하게 일컬어 지기를 바라십니다. 자기 반에 참석한 학생을 부를 때 “어이!” 라던가 “파란 셔츠를 입은 사람” 등의 칭호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개인의 인격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이름과 나아가서 저들의 별명까지도 외우려 할 때 비로소 교사와 학생간의 특별한 유대가 형성되는 것이며 이렇게 된 다음에야 신뢰와 학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2. 학생들의 신상 문제, 취미, 포부 등을 열심히 알아 봅시다. 반 학생들이 무엇에 특별히 관심을 갖느냐 하는 것을 알면 산 공과를 준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교사와 학생간의 유대를 증진시키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으로 설문 카드를 돌리는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이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학생들의 사생활을 건드리거나 설문의 기재를 의무로 느끼도록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사가 학생들과 좀더 친해보고 싶어서 설문 카드를 돌렸음을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는 가정 복음 교사나 신권회 직원, 혹은 학생의 친구들에게 직접 학생에 관하여 묻는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 신문이나 지역 신문에 관심 있게 학생들과 관련된 기사, 시사 관계, 학생들의 관심사를 파악하는 방법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축하해 주어야 할 일에는 전화를 걸던가 직접 방문하여 축하 인사를 전해야 합니다.

3. 정확하게 출석 상태를 조사하여 결석하는 학생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결석한 학생을 방문한다면 전화로 걸어 그에 대하여 충분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표명하는 경우 결석했던 학생이 다시 반에 나올 확률은 커집니다. 결석의 사유가 정당하던가 정당하지 않던가 간에 교사가 관심을 갖지 않아 그대로 지나치고 만다면 학생으로 하여금 공과 참석의 의의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번도 결석한 일이 없는 학생이 가질 수도 있는 아픈 소외감 같은 것에 관하여 깊게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큰 관

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도록 해야겠습니다.

4. 여러분이 학생의 입장에서 교사에게 요구했던 그런 존경의 태도로 학생 개개인을 대하도록 하십시오. 학생이 여러분 보다 어리고 미숙하고 경험한 바도 적고 덜 배웠다고 해도 저들이 진지하게 토로하는 자기들 나름의 견해는 바로 저들의 개성이요 인격임을 기억해야 하며 그것이 옳건 그르건 하나의 견해로서 일단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교사가 마치 외과 의사가 복잡한 수술을 능숙하게 처리하듯 이러한 학생들의 제의와 견해를 받아 원만하게 처리할 수만 있다면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제의가 무시되던가 조롱의 대상이 되던가 가볍게 처리된다고 하면 교사와 학생간에는 뛰어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생길 것이고 이로 인하여 학생은 교사와 교사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말 것입니다.

5. 자주 학생들에게 저들을 알게되고 또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다고 하는 사실을 전해 주도록 하십시오. 아울러 그러한 이야기를 전할 때에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말하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학생들은 거짓 칭찬이나 이야기를 쉽게 간파합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 저들은 여러분이 전하는 참된 밋세지마저 믿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반대로 정직한 대화의 통로가 열리는 경우 칭찬과 격려의 이야기는 더 배우겠다는 의욕을 더욱 강하게 갖도록 해 줄 것입니다.

6. 반 학생들의 기분과 요구 사항을 민첩하게 파악하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빨갛게 분 눈으로 수난에 휘말린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서거든 조용하게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함께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의 힘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내용의 간단한 글을 눈에 띄지 않게 그의 손에 쥐어주는 것도 큰 도움과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염려와 사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사의 인간적인 노력외에도 복음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은 적을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나 이상 열거한 여섯 가지가 우선 기초 작업을 돕는 열쇠는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교사는 자기와 학생들간의 유대를 긴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교사가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의 중요성을 깨닫고, 요셉 스미스가 말씀하신 바 “오직 어리석은 자가 인간을 소홀하게 여기는니라.”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학생을 위하여 자기의 모두를 바칠 수 있을 것이며 학생들이 기쁨과 긍지를 갖고 반에 출석하도록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의 부름을 받은 자에게 있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있겠으나 “개인의 참여 및 헌신”은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

5월 주일학교 성찬식 전주곡



5월 주일학교 성찬식 성문 봉독

장년 주일학교

요한복음 14장 6절

유년 주일학교

창세기 1장 27절

5월 주일학교 연습찬송

장년 주일학교

128장 찬양하라 시온의 기쁜 아침

유년 주일학교

59장 당신의 집을 사랑합니다

5월 주일학교 성구암송

장년 주일학교

야곱반 마가복음 9장 23절

유년 주일학교

기초 교리반
혹은 요한반 교리와 성약 1장 37절

● 유대 재판정은 나사렛 예수에게 신성 모독이라는 죄명을 씌웠다. 그러나 예수는 그러한 죄목으로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아니었다. 십자가의 처형은 유대의 것이 아니라 로마의 처형 방법이었다. 로마의 재판관 앞에서 예수는 소요죄로 기소당했다. 그러나 그는 그 죄목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렇다면 어찌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박혔을까? 그것은 비굴한 로마 재판장이 예수의 죄과에 대해 세번이나 무죄를 선고했으면서도 제사장들이 조종하는 폭도들의 강권하는 외침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었다. 예수는 자기 민족의 선동으로 로마인에 의해 살해되었다.

계획된 암살?

학자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의 체포와 재판에 그들 자신의 율법을 깨뜨렸던 여러 가지 점을 제시해왔다. 단 몇가지 만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는 밤에 체포되었다. 그는 그의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오직 한 명의 재판관에 의해 심문받았다. 참의원은 그의 재판을 밤에 거행하였으며 더구나 그 때는 성일로 재판이 금해진 날이었다. 재판은 단 하루 동안에 시작되어 결말을 보았으며 판결은 오직 기소된 사실의 자백에 근거를 두었을 뿐이었다.

이상과 같은 금지된 소송 절차는 매우 성급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왜 예수의 적은 그를 대낮에 체포하지 않았으며 유대인의 성일이 오기 전 충분히 긴 시간을 잡아 참의원으로 하여금 상정된 재판을 성공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던가? 왜 금부에서는 예수에게 제사장들 앞에서 불법인 일신상의 심문을 받도록 강요 하였던가? 왜 음모자들은 유대를 매수하여 그의 주를 배신하게 함으로써 예수를 정죄하기 위한 거짓 증거로 삼았던가? 예수의 체포와 재판에 따르는 모든 움직임이 사후에 급히 서둘러 조작한 위증같은 인상이 짙으며 사실 그것은 저들이 이행하려던 다른 계획을 대치한 응변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예수는 그의 말씀 중 자주 그를 계약으로 얽어매려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경멸해 왔으므로 아마도 그 때문에 그들은 그와 대면해야 하는 공식 재판을 주저하였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유죄 판결을 내릴만한 증거를 내놓기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세 공판복음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를 “간계”와 “술책”으로 잡아 죽일 수 있을가를 음모하는 것에 대해 자주 서술하고 있다. (마태 26:4, 마가 14:1, 누가 22:2 참조) 그것은 확실히 체포와 재판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암살 계획을 획책하고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대낮에 담당 관리를 보내어 예수를 체포하

예수의 재판

다린 에이치. 옥스

다린 에이치. 옥스는 현재 시카고 대학교 교수로서 부리잡 영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 1957년 시카고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다. 4권의 책을 저술했고 많은 논문을 집필한 그는 시카고 대학교 법률학회지의 주관을 지낸 바 있고 지금은 사법지, 사회봉사 레뷰지, 다리아로그지 등의 논설위원이다. 부인 쥘 디슨 여사와의 사이에는 다섯 자녀가 있으며 현재 일리노이즈주 시카고 남부 스테이크의 대학 와드내에서 살고 있다. 그는 스테이크에서 스테이크 선교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고 있다.

게 하였던들 유대를 보내어 그가 있는 곳을 알리게 하고 예수를 체포해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야간 재판

그러나 유대는 밤에 보내졌다. 그는 “검과 몽둥이를 가진 큰 무리”를 이끌고(마태 26:27, 마가14:43 참조) 예수를 체포하고자 예수가 머물던 도시 밖의 은둔처로 갔다. 만일 살해가 목적이었다면 왜 그들이 예수를 그곳에서 살해하지 않고 예수를 묶어 아나스에게 호송했던가 하는 점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아마도 그곳엔 암살을 알릴만한 증인이 너무 많았거나 또는 그곳에서의 칼부림이 폭도들의 일원으로 가장한 대제사의 종이라는 흔적이 너무도 뚜렷하여 고급 관리들에게 죄를 지을 우려가 있었으므로, 폭도들이 그들의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어쨌든 예수는 전 대제사이며 당시 유대의 뛰어난 정치적 인물이었다. 아나스에게로 잡혀갔다. 재판 수속이나 심지어는 밤의 방문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그것은 차라리 그들 대로의 계획에 실패하여 새로운 지령을 기다리고 있던 부하들의 놀란 행동에서 더 잘 설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를 다루어 예수는 마치 그들의 자비를 받는듯이 보였으니 그것은 그가 인기있는 지도자요 또 그를 따르는 열렬한 갈릴리의 추종자들이 그



를 유죄한 자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죄 없는 참의원의 야간 재판이 서둘러 소집되었으며 예수는 심판관 앞에 불러 나왔다. 제사장들은 그에 대한 증인을 구하였으나 아무도 명확한 증언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몇몇 위증자들이 증언을 하였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모순되었고 이러한 것은 유대 법률하에서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다. 예수는 이 증언이 진행되는 동안 침묵을 지키고서 있었다. 그것이 그의 권리였던 것이다. 고소당한 사람이 그의 재판 진행 도중 비난과 변호를 말할 수 있는 앵글로 아메리칸의 관례와는 대조적으로 유대의 법률은 철저한 침묵을 지키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예수는 그에 대한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정식으로 고소된 것으로 간주되지도 않았다. 이토록 성급히 조작된 재판은 예수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할 수 없었다. 그들이 무엇을 판명해 내려고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다. 어떤 학자들은 치안 방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거짓 예언이라고 말하였다.

결국은 가장 신성한 법칙을 범한 것을 자백받기 위하여 대제사는 엄숙한 태도로 예수에게 그가 신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대답하게 하였다. “내가 그니라” 예수가 대답했다. 대제사장은 광적으로 자기의 옷을 찢으며 외쳤다.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람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

느냐?”(마가 14 : 63, 64) 재판정은 만장일치로 예수에게 사형을 내렸다.

그의 자발적인 뜻과 진실한 대답으로 예수는 그의 적에게 그를 죄 지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던 것이다. 그의 생명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되 예수 스스로는 버릴 수도 있었듯이 그의 처형에 있어서도 그는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는 자기를 스스로 재판정에 던진 것이다. 가장 극악한 불법의 절차라 할지라도 그가 말하지 아니하였던들 옳지 못한 행위로 그를 유죄로 입증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예수가 범속한 인물이었다면 재판장은 법률의 요지를 고쳐야만 했을 것이다. 지존자를 모독하는 일체의 언행은 신성 모독죄가 된다. 그러나 예수는 보통 인간은 아니었다. “신성 모독죄나 신성한 권위나 질서를 어긴 죄를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유일의 생명인 예수가 이스라엘의 재판장 앞에서 신성 모독죄의 판결을 선고 받아야 했다.”¹⁾

빌라도

참의원들이 다시 모여 판결을 결정한 것은 한낮이었다. 이들은 예수를 묶어 로마인으로서 유대를 다스리는 자와 사형 집행 명령권을 가진 유일한 인물인 빌라도에게로 데려 갔다.

제사장과 장로들이 먼저 예수가 유대 재판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빌라도의 사형 명령을 얻으려 하였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리하여 원고측에서는 새로운 재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죄가 로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까닭에 저들은 새로운 죄목을 연구해야 했다. 그리하여 이들은 예수가 세금 징수 위반, 군중 선동, 스스로를 왕이라고 주장한 것 등을 들어 죄목을 씌우려 하였다. 고발자들의 고발 내용과 자기가 뜻한 왕국은 “이 세상이 아니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을 듣고 난 빌라도는 드디어 판결을 내렸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누가23 : 4) 고발자들의 얼굴엔 새로운 동요의 빛이 비쳤으며 이들 제사장은 자기들의 책임을 면하고자 더욱 신랄하게 그리스도를 헐뜯었다. 빌라도는 유월절을 쉬러 예루살렘에 가 있던 갈릴리의 통치자인 헤롯왕에게 갈릴리의 죄인을 보냈다. 그러나 헤롯도 자기 앞에 조용하게 서 있는 기쁨이 당당한 이분을 정죄할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를 다시

1) 제임스 이. 탈레지 저. 예수 그리스도

2) 유대 지도자들은 신성 모독과 같은 죄의 경우 둘로 쳐 죽이게 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그들은 유명한 지도자를 처형하는 데서 야기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로마 처형인을 구했을 것이라고 한다.

빌라도에게로 보냈다.

로마의 재판관이 용감하고 또 그의 권좌가 든든하였던 예수를 당장 방면하였을 것이나 빌라도는 용감하거나 권좌가 든든하지 못하였다. 그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것을 염려하였으며 이로써 자기의 지위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빌라도는 디베리우스 가이사가 가브리로 돌아갈 때 함께 했던 시야누스가 임명 하였었다. 그러나 가이사가 로마로 돌아온 후 시야누스와 그를 떠받들던 자들이 모두 잡혀 더러는 죽임을 당하게 된지라 빌라도의 지위도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위치를 허물어 버리려는 로마인들과 맞서기 위해서는 유대 지도자들의 협력과 지지가 필요하였다. 그는 군중의 비난이나 권세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 상관에게 예루살렘에서 거드름을 피운 로마인을 고발했을 때에 들었던 견책 같은 것을 다시는 듣기를 원치 않았다. 빌라도는 “만일 그대가 이 자를 풀어 준다면 그대는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라”(요한19:12)고 한 피많은 제사장의 말에 움직여 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를 십자가에 달라!

예수의 무고함을 알면서도 예수를 풀어주기를 두려워 했던 빌라도는 명절에 죄인을 방면하는 관례대로 그를 놓아 주고자 군중의 의견을 묻기로 하였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오히려 다른 죄인을 택하여 방면하도록 군중을 설득시키거나 선동하였다.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물었다. 군중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고 소리 질렀다. 그러자 빌라도는 다시 저들에게 예수의 죄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무리들은 더욱 큰 소리로 그를 십자가에 달라고 소리쳤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의 요구에 따라 바라바스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도록 저들에게 넘겼다. (마가15:13-15참조) 그러나 빌라도는 먼저 손을 씻어 예수의 무고함을 입증하였다. 그는 고발자와 군중들에게 “내가 보니 그에게 죄가 없도다”(마태27:24, 요한19:6)라고 하였던 것이다.

장로와 제사장에 의하여 선동된 폭도들은 저들의 뜻을 이룬 것이다. 저명한 캐나다의 평론가 한 분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역사의 고금을 통하여 재판장의 무죄 선고 받은 자가 그 재판장에 의하여 처단자의 손에 넘겨진 예를 다시 찾아 보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

3) 제임스 씨. 백루어의 예수의 재판 72페이지 유대 지도자들의 본래 계획은 예수를 체포하려는 것이 아니고 암살하려는 것이었다.



'70

●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갈라 놓으시며 물과 육지를 구별하셨습니다. 또한 초목과 풀과 열매를 맺는 나무를 지으셨고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지으셨으며 이러한 것들이 다 되어진 후에 “하나님이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참조)

시작이란 늘 긴장하게 마련이고 조금은 두렵고 당황하게 하지만 기쁨과 망설임과 기대가 부풀어 가슴을 채웁니다. 이제 우리는 1970년대를 시작하는 출발점에 와 있습니다. 이 70년대를 훌륭하게 지내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전에 기록된 세상의 시작에서 나 나뉘므로의 새 시대를 위한 비결 세가지를 여러분께 인용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결:창조의 시작에는 “인간의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려는”(모세1:39)목적이 있었었습니다. 이 목적이 변경된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계획된 작업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정확함과 작은 일에서까지 신경을 쓴 일, 창조자와 우주의 재료에 대한 절제 등, 우주에는 질서가 존재했습니다.

토마스 카알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어리거나 천치가 아니고서는 뚜렷한 목적이 없이 인생을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마음에도 목적을 두고 행동하는 데도 목적을 세우되 이 지구와 인간이 지으심을 입게 된 목적과 같은 비중의 목적을 갖도록 해 봅시다. 또한 목적을 세울 때는 세심한 계획을 하도록 하고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지식과 이해를 갖추도록 하며 계획을 이행하여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난관이 닥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헌신하는 마음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시작하여 모든 것이 갖추어진 출발이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비결에 쓰일 재료입니다. 우리 다같이 기쁨과 노래와 우의와 즐거움을 나날의 생활에 엮어 봅시다.

주님께서 욕에게 회오리 바람 속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는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출발을 암시해 주는 말씀

70년대를 위한 비결

메이بل 존스 가뭇

이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새벽 별이 함께 노래할 때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쁨을 외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욥기 38 : 4, 7 참조)

아마 욥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또 우리라도 그렇게 대답할 그런 대답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지구를 받아들였고 우리가 이곳에 보내진 계획도 받아들였으며 함께 노래도 했습니다. 태초에 우리는 함께 기쁨을 노래하며 지상 생활의 체험을 쌓을 기회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들 딸이나 증손에게 축복을 전해 준다면, 즐거움 보다 더 좋은 축복이 많지 않을 것이니 즐거움을 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러번 거듭하여 들려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뻐하라.” 이것은 신앙과 용기를 가지고 하찮은 일에 근심하지 말라는 뜻이며 어깨를 펴고 고개를 치켜 들고 힘차게 전진하라는 뜻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주위에 비치라는 뜻이며 우리가 근심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서 약동하고 있다는 기쁨을 외치라는 뜻이며 70년대에 살게된 것을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인생이 영적인 것이요, 고급 자동차나 호사스런 옷차림으로 모양지어질 것이 아니며 서로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조용한 대화가 전달되고 이해되는 가운데 웃음과 온정을 나누며 서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할 것임을 뜻합니다.

고 맥케이 대판장님은 “사람에게는 저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에 전달되고 비쳐주는 개인 개인의 분위기와 영향력이 있는 법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쁘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이 기쁨의 즐거움을 노래하게 합시다.

우리의 세번째 비결은, 그리스도와 그가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이 가장 소중한 삶의 바탕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태초에…”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있었

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요한 1장 참조)

하나님의 아들인 말씀이 있었으므로 세상이 창조되었으며 그 분은 우리와 함께 노래하고 기쁨을 외쳤으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의 기쁨을 노래하였고 인간으로의 고난을 당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까닭에 태초라고 하는 시작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회개의 은사를 주셨으며, 이 회개가 없이는 여하한 시작도 진정한 의미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시작은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때 비롯되며, 옛 것은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는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 1 : 4) 간곡히 여러분께 청하거니와 그리스도를 더욱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더 잘 알아 이 참으로 위대한 인자를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모든 것이 혼란한 이 칠십년대를 살면서 그리스도의 삶의 방편이 곧 우리의 삶의 방편이 되게 합시다. 그리하여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행적을 따르며, 이 험한 세상에서 그의 가르침이 우리의 도덕의 표준이 되게 합시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더불어 안전할 것으로 안다면 앞으로의 70년대는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불가능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비결을 무기로 해서 노력해 봅시다. 비결 :

1. 잘 정리된 목표와 계획.
2. 기쁨, 즐거움, 노래.
3.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로 삼음.

우리가 이와같은 비결로 세월을 살면서 “보라 그 비결이 참으로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하루를 끝내는 저녁이나, 혹은 송년의 마당에서, 아니면 70년대를 끝내는 날에 참으로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

기도하는 시간이

● 화를 치고 우는 닭의 울음 소리는 세월은 흐르고, 시대와 삶이 차원을 달리한다는 사실을 상징한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나 또 어느 때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다고 느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도를 드린다.

1. 인도를 구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입장에서 영감을 구하는 때의 기도라 하겠다. 인생의 중대사란 일반 사회 계약, 직업의 선택, 주택을 사고 파는 일, 사업상의 문제 등일 수도 있다. 이러한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숙제를 해야한다. 이를테면 수집이 가능한 재료를 모두 수집한다든가 신빙성을 검토한다든가 지혜를 다하여 연구하는 등, 그런 다음에 성령의 확인을 간구해야 할 것이다.

2. 교통하기 위한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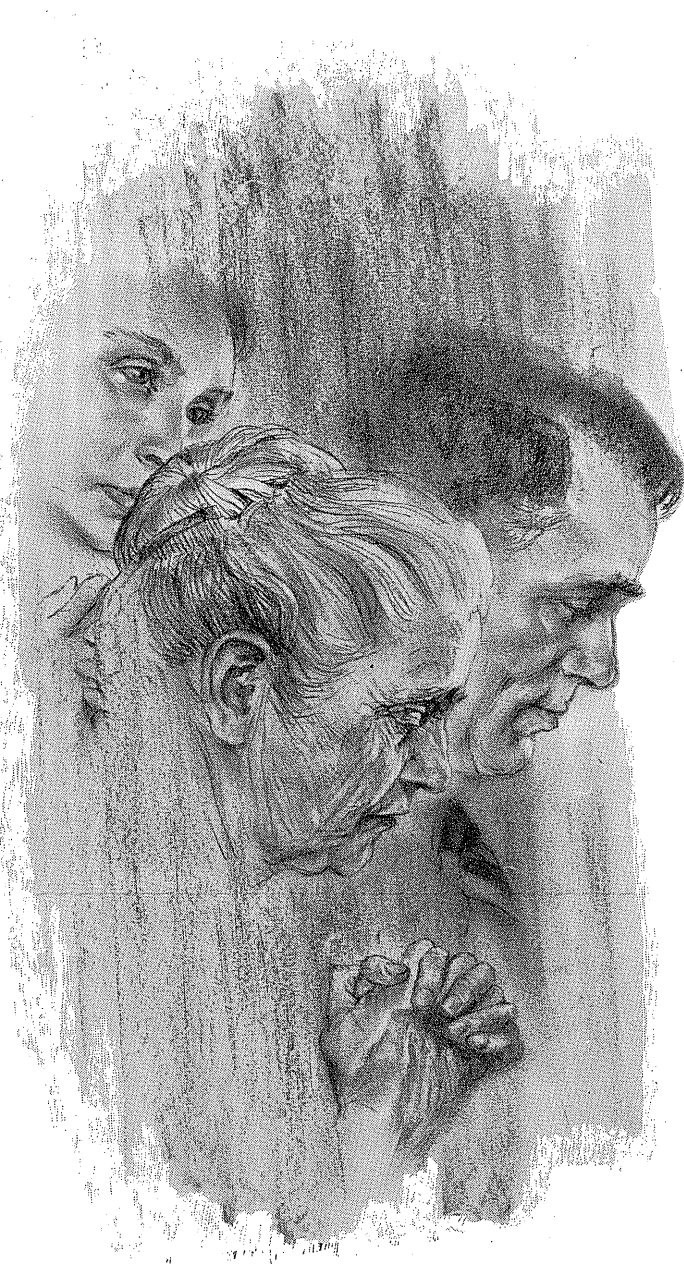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인 것이다. 직장이나 학교에 가고 있거나, 집안 일을 정리하고 있거나, 정원에서 잡초를 뽑고 있거나 간에 먼저 마음을 활짝 열어 놓아야 한다. 절실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즐거움도 나누며 고난이나 슬픔의 짐도 나눈다. 이러한 기도는 인생과 연결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행하여 질 수 있다.

3. 절박한 필요시의 기도

이런 기도를 소리내어 하는 경우는 드물다. 주님의 인도와 지시와 도움과 사랑과 이해가 필요한 절박한 위기에 처하게 될 때 드리게 되는 기도이다. 우리는 겸손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대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은 고난이나 두려움으로 메워지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은 떨린다.

4. 용서를 구하는 기도

대체로 우리는 계명을 어기거나 남의 마음을 상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빅토 비. 클라인

준 다음에 일단은 그것을 누우치고 아픈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한다. 참회의 눈물과 상한 심령, 잘못을 수습하려는 간절한 바램이 따로 없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영을 내리사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다리를 놓아 주시기를 바란다.

5. 보호를 구하는 기도

먼 길을 떠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야 할 때—군대나 선교 사업이나 먼 곳으로의 유학 등—대체로 우리는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 그 밖에도 온 가족이 일정한 기간동안 헤어져 있어야 할 때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한다. 우리는 위협이나 돌발적인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빌고 올바른 판단력을 행사하고 안전을 기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구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6. 감사의 기도

축복을 받았거나 여행을 안전하게 끝냈거나 병에서 완쾌됐거나 혹은 삶에 대한 감사를 느낄 때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던져 주시는 온갖 권세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인식하는 데서 비롯되는 기도이다.

7.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남편이나 아내가 그 반려자를 위하여,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여 아픔을 느껴야 하는 시간이 있다. 그 밖에도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거나 멀리 떠나 가거나 자기와 단교를 선언하거나 기타 삶의 곤경에 빠질 때 우리는 아픔을 느낀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8. 음식 기도

음식 기도란 우리를 위해 준비된 음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는 매일매일의 기도이다. 음식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은 땅의 풍성함을 감사하고 우리

의 힘과 활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린다.

9. 가족 기도

가족 기도란 온 가족이 매일매일 함께하여 소리내어 드리는 특별한 기도이다. 가족 기도는 가족 상호간의 유대를 돈독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방법과 절차를 가르치기도 한다.

10. 자비의 기도

자비의 기도는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다만 이 시간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이다. 무상으로 주어지는, 우리와는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숭고한 기독교적 사랑에서 비롯되는 기도인 것이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우리 이웃일 수도 있고 우리와 한 도시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먼 곳의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대상에 대하여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할 경우가 오히려 많다. 그러나 그가 누구이든 우리는 그가 도움과 축복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며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11. 건강을 위한 기도

사고가 발생했거나 건강을 잃었을 때 하는 기도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치유를 간구하고 속히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십사고 기도하는 것이다. 신권을 소유한 형제의 기쁨 축복을 함께 하기도 한다. 끝에는 늘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말로 끝을 맺는다.

12. 교회에서의 기도

이 기도는 대중을 대표하여 한 사람이 드리며 모두가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에 관하여 배울 수 있게 해 주신 특권과 기회를 감사한다. 아울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 것이다.○

교회의 표준 절차에 따르자

선교부장 서 현 보



● “그건 미국에서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사정이 달라요.” 라는 말을 회원이나 지도자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물론 관습과 율례에 있어서는 나라와 나라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사회하고 진행하는 방법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똑 같습니다. 다만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들은 여하한 경우에도 이러한 절차에 수정을 가한다거나 편의상 바꿀 권능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이 독일의 어느 지부를 방문하여 독일어로 진행되는 집회에 참석한다 하여도 여러분은 마치 자기 소속 지부에 참석하고 있다는 감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그 모임의 절차가 한국에서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모임을 인도하거나 지부 및 지방부의 행사를 처리하는데 있어 이미 표준화된 교회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절차는 우리를 위하여 정해진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지시할 권능을 갖고 계신 분에게 제시등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의식 가운데에는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정해진 것이 많고 이들 내용은 교리와 성약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초의 하찮아 보이는 변화는 보다 크고 심각한 변화를 낳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은 성찬 축복은 이미 정해진 기도문에서, 주일학교, 성찬식에서의 찬송은 교회 찬송가에서, 공과는 교회가 정한 교재에서, 상대방을 부를 때는 “형제, 자매”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맨 나중에 말씀드린 호칭 문제와 관련하여, “장로”는 복음 선교사에 한하여 사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절차와 의식을 수립하셨습니다. 그 분이 돌아가신 후 초기 기독교에는 잡다한 변형이 갖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예배 방법, 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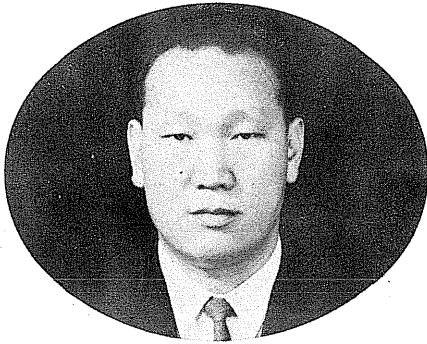
로운 의식의 변화를 필두로 가장 단순하고 근본적인 것까지 바뀌기에 이르렀고 배도의 거친 숨결은 교회를 휩쓸게 되었습니다.

제이. 루우벤 클라크 부대관장님은 벨기세텍 신권회 교재인 불멸과 영생의 제2권에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같은 위험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새롭지만 부패한 생각과 관례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를 성찬 집행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찬 집행에 관하여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여행하다 보면 여기 조금 저기 조금하는 식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조직되고 약 100년 정도가 지난 요즈음에 이런 정도라면 세월의 흐름과 발 맞추어 주님이 명하신 바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클라크 부대관장의 말씀을 분석하여 보면 새로운 방법이 남부 지방부에 하나, 호남 지방부에 하나, 중앙 지방부에 하나, 목포에 하나와 같은 식으로 증가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 우리가 한 소리가 아닌 저 옛날 바벨탑 시대에 혼란된 언어로 고통을 받던 때가 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사회하고 인도하자는 요구가 강하고, 또 그런대로 손해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시행하다가 정해진 방법이나 형식과는 다르다는 경고를 받았을 때는 이미 시정의 시기로는 늦은 것입니다. 모든 집회에서, 또한 서로와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닌 단순성과 순수성을 그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으로 살자

중앙 지방부장 차 중 환

● 다윗이 낙심스러운 환경가운데 스스로 용기를 얻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하면서 낙심을 이기고 지은 시가 있습니다.

인생은 약하고 환경은 강합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환경의 지배를 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환경의 지배를 당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인생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희망과 소망이 끊어지고 고통과 고생이 막심하여 질 때 낙심하지 말고 마음 깊숙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만 소유한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서광이 비쳐옵니다. 폭풍이 지난 들에도 꽃은 피고 지진에 허무러진 땅에도 새싹이 나고 불에 탄 흙에서도 새 생명이 솟아나니 사랑과 빛에 가득찬 자연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으며 피할 길을 항상 열어 주신다고 하였으니 같질이 좁고 험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고 명하신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낙망과 절망적인 심정이었으나 주님의 명과 뜻을 따르려는 신앙에서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율의 축복은 동방의 거부가 일석 일조에 거지가 되고 아들 딸 다 죽고 외롭기 그지없는 데다가 몸마져 만신창이로 불치의 병객이 되어 낙심스럽고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온 것입니다.

내가 사업이나 시험에 실패하였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이요, 실패는 성공의 밑바침이며 모체인 것입니다.

내가 무서운 죄에 빠졌을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회개한 자를 세상 사람은 나를 비록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속담에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자 없다”고 했듯이 죄없는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범죄한 자를 비웃지 말고, 범죄한 자는 낙심하지 말지니, 참 회개와 애통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다시 사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사망의 권세아래 사로 잡힐 때도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진실한 신앙만 있다면 죽음은 하나님에게

더욱 가까이 가는 사닥다리가 되는 즐거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 김활탄 박사는 「나는 인간의 생명이란 영원 불멸함을 믿는다. 육체의 기능이 폐퇴되어 심장의 고동이 그친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다. 장례식 대신 더 풍성한 생명의 길로 더욱 화려한 승리의 길로 환송해 주는 환송예배를 부탁」했습니다. 정말 사망을 주님께 가까이 가는 큰 영광으로 생각한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스테반은 순교를 당할 때 핍박하는 자는 보지 않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즐거워 했으며, 사도 바울은 로마 옥 중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로 존귀케 하겠다.」고 하였답니다. 믿는 자는 죽음을 초월합니다. 그리스도 교회를 회복하신 예언자이신 요셉 스미스 대관장님도 죽음을 초월하여 참 진리 참 신앙을 굽히지 않아 결국 순교 당하셨습니다.

절망에서 하나님을 바라 보라 하심은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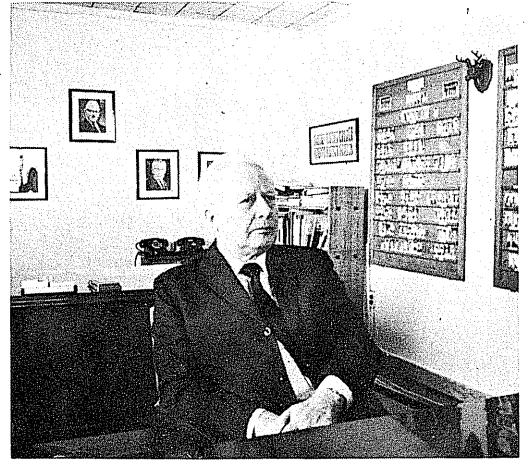
우리가 낙심함은 나의 부족 때문이요, 나의 신앙이 죽어가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낙심하지 말고 부족한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 실패를 걱정 말고, 피로움을 걱정 말고, 유혹을 걱정 말고 이것 저것 생각하다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으로써 구해야 합니다. 구한 것 못 얻는다고 낙심 말고 이 세상에서 못 얻으면 다음 세상에서 얻을 것이 더욱 많고 이 세상은 잠깐 왔다 가는 짧은 기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낙망과 절망은 하나님을 책망하는 마음이며, 일종의 타락이며, 어리석은 자의 결론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거지 나사로는 많은 고생도 했고, 눈물도 흘렸고, 굶주림도 보았으며, 업수히 여김도 받았고, 병도 앓았고, 멸시와 모욕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하지도 않고 낙심도 않고 믿음으로 살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습니다.

세상은 순풍에 돛 단듯이 평탄하지 만은 않은 것이고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과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낙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케네디 형제 선교부 방문

미국 재무부 장관으로 있는 케네디 형제가 지난 4월 8일 9시 선교부를 방문하였다. 4월 9일부터 3일간에 걸쳐 조신포털에서 있었던 "아세아 개발 은행" 서울 총회의 미국 대표로 한국에 온 그는 공식 일정을 갖기에 앞서 한국 선교부를 방문하여 한국 선교부 전반에 관한 이 호남 형제의 브리핑을 들었다. 그는 1969년 1월 닉슨 행정부 조각시에 전 미시간 주지사였던 롬니 형제와 함께 입각하기 전 차관 관계로 1967년에 한국을 방문하여 11월 19일 중앙 지방부 지방대회에 참석하여 "회의의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이곳에 왔다"면서 간단한 말씀을 한 바 있다.

그는 그간에 국가와 교회가 발전하고 변한 모습이 대단히 인상적이라면서 다음에 올 때에는 "많은 형제, 자매와 만나도록 하겠다"며 헤어지는 아쉬움을 남겼다.

사진 : 케네디 형제와 그를 영접하는 성도들. 그는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의 합창을 듣고 선교부를 출발하였다.



이 원환 장로 웅변대회 입상

지난 3월 31일 대한 공론사 주최 "외국인 남녀 한국어 웅변 대회"에서 에이부라함 리(한국명 이 원환)장로가 4위로 입상하였다. 한국인 2세인 그는 1년전만 하여도 잃어버린 한국어를 기억하기 위해 무척 애를 썼었는데 이날 "한국계 미국 시민으로서의 나의 역할"이란 제목의 웅변을 통해 선교사 생활을 마친 후의 자기의 사명을 밝힌 바 있다. 사진 : 웅변하는 이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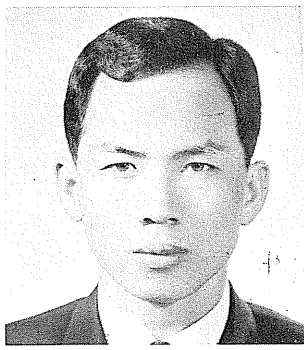
상호 부조회 3월 21일 중앙과 남부 지방부 상호 부조회는 상호 부조회 창립 기념 모임을 가졌다. 3월 17일의 기념일을 편의상 연기한 이날 중앙은 170명 남부는 60명이 참가하였다.

차 종 환 중앙 지방부장 득남

지난 4월 8일 위생병원에서 득남하였다. 2남 1녀의 아버지가 된 그는 산모가 건강하다며 자랑이 대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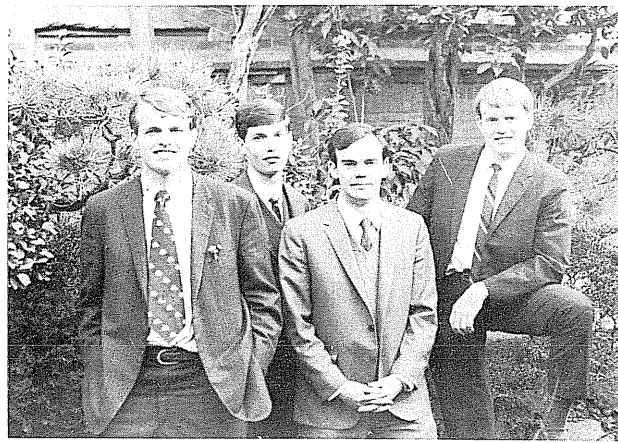
외국인 선교사 2명 귀환

선교부 기록서기 라 장로와 남부 지방부 제2보좌를 지낸 킹 장로가 2년 반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 4월 16일 고향인 미국으로 귀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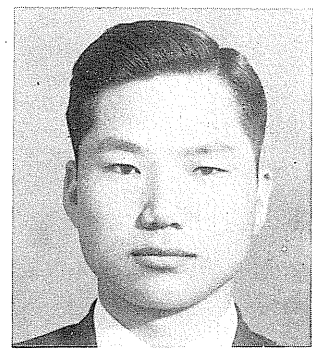
천 낙서 형제
신촌 지부장으로

귀환 선교사 천 낙서 형제가 신촌지부장으로 지지되었다. 지난 4월 5일 지방부장단에 의해서 지지가 물어진 그는 인사를 통해 쉬지 않는 신앙생활에서 얻어지는 축복을 받자고 했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온화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그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여 왔었다. 부인과의 사이에는 두 공주가 있다.



자라나는 목포지역

작년 11월 1일 두명의 선교사가 목포에 도착하므로 광주에 이어 전라남도에서 두번째의 선교지역으로 탄생한 목포지역은 그간 착실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11월 2일 유달산에서 헌납기도를 드린후 두명의 선교사가 보강되어 4월 4일까지 24명의 새로운 회원이 탄생한 의욕적인 곳으로 자라고 있다. 지역장 벨슨 장로는 "우리는 이 새로운 지역에 복음이 옹기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소개에 의한 전도를 하고 싶다." 고 했다. 목포지역은 주일학교, 신권회, 성찬식을 갖고 있다.
사진 : 좌로부터 벨슨, 카스테러, 조지슨, 썬더슨 선교사.



정 윤 형제
녹번지부장으로

청운지부의 지부장을 지낸 바 있는 정 윤 형제가 4월 12일 녹번지부장으로 지 지되었다. 교회 초창기에 회원이 된 그는 조용한 실천가로 알려져 있는데 지부장으로로서의 계획을 "가족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지부로 키우기 위해서 회원 모두가 선교하는것"이라고 밝힌바 있었다. 중학교 교사로 있는 그는 노종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새로운 회원을 소개합니다

월일	이름	나이	성별	지부	월일	이름	나이	성별	지부	월일	이름	나이	성별	지부
2/28	김경숙	38	여	대전	3/6	홍숙현	22	여	전주	"	신경희	37	여	동래
"	정희	13	여	대전	"	정규석	11	남	전주	"	정미경	22	여	동래
"	정순	16	여	대부	3/21	조경동	49	남	전주	"	김종훈	29	남	동부
"	정창호	36	남	부부	"	조성연	38	남	마산	"	이종옥	18	남	부목
"	정연호	14	남	부부	3/27	홍명옥	14	여	춘천	"	김정숙	19	여	목포
"	손형기	15	남	부부	3/28	강실	28	남	목포	"	이선옥	16	여	동부
"	장승일	17	남	동동	"	차종로	18	남	목포	"	이강복	9	남	인인
"	이만재	○	남	동동	"	정규분	18	여	마산	"	이송문	35	남	인인
"	강묘향	○	여	동동	"	최희박	18	여	마산	4/4	정명숙	31	남	여인
3/7	조길자	24	여	구구	"	박봉선	29	여	마산	"	이경자	16	여	여인
"	조경혜	20	남	구구	"	이희정	9	남	마산	"	박옥인	16	여	여인
3/14	구필제	19	남	대대	"	이심정	16	남	마산	"	김정선	24	남	영등포
"	허필욱	20	남	대대	"	이필병	22	남	마산	"	김남규	27	남	영등포
"	조병룡	16	남	대대	"	이정환	32	남	주주	"	김홍성	19	남	영등포
"	조병경	35	여	대대	"	이정훈	16	남	주주	"	김수민	16	여	여인
"	구매녀	60	여	대대	"	이순제	16	여	광주	"	김신제	21	여	여인
"	이범태	31	남	대대	"	이건중	34	여	광주	"	최정기	22	여	여인
"	윤은화	8	여	대대	"	이건중	21	남	광주	"	정유근	21	여	여인
"	윤종구	11	남	대대	4/4	조사옥	15	남	동동	"	정유강	21	남	여인
"	강수경	20	남	대대	"	박희재	16	여	동동	"	정유준	21	남	여인
3/6	유방현	17	남	대대	"	송병현	13	남	동동	"	정용선	21	남	여인
"	나혜영	16	여	대대	"	안정환	14	남	동동	"	홍성미	20	여	여인
"	홍성재	11	남	대대	"	정박	12	남	동동	"	홍성재	19	남	여인
"	홍성재	15	남	대대	"		24	여	동동	"				

이상 71명

행복한 결혼

리차드 엘. 이반스

● 결혼과 행복한 가정 생활이 온전하고 행복한 삶, 그리고 안정된 사회의 바탕이 된다고 하는 진리는 늘 우리들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다가 보면 그토록 소중하고 아름답고 단란하던 것들이 때로는 증오의 대상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고 맥케이 대판장님은 이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란한 햇빛 아래에서 서로의 사랑을 약속한 부부가 오해의 먹구름과 사랑의 빛을 저해하는 것으로 빛을 잃는다면 참으로 이보다 더한 비극이 없을 줄 압니다.”¹

허버트 웨 박사가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러한 비극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인용해 봅니다. “왜 사람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방법을 알지 못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어째서 상태의 변화가 그토록 심각한 것일까요? 사람들이 남녀를 막론하고 비통하고 처절한 상태에서 그토록 웅장하고 소중했던 소망을 되찾으려고 노력합니다.이에 관하여 이야기 하는 사람.....이를 쟁취하려 노력하는 사람.....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여러분과 나누며 사는 사람.....무엇이 과연 이들에게 이러한 동기를 갖게 해 준 것일까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하찮은 일이 폭발하고.....서로의 이해가 허물어지고.....이기심을 내세우고.....헛된 자만심을 부리고.....(금전 문제에서 흐리 멍텅하거나 책임감이 없거나).....비밀을 가지는 버릇.....상호간의 공동 오락이나 취미의 결여.....이런 것들이 수습되지 않고 계속되는 한 비록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정신상의 이혼이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이와 같은 파괴의 원인이 되는 요소가 자라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우리들의 대화가 노여움이나 이기심 혹은 불평 불만으로 인하여 험악하게 발전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되겠습니다.상대방에 대한 칭찬과 예절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으며 침울한 분위기에 싸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만일 완전한 동반자를 택하지 못했다는 누우침으로 가슴이 아파지거든 얼른 거울 앞에 서서 그곳에 비친 얼굴을 향하여 ‘너는 완전한 동반자이냐?’고 물어보도록 합시다. 되풀이하고 되풀이해서 물어보면 어떨까요? ‘나는 과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동반자로서 할 바를 다하느냐’고 물어보면 어떨까요?”² 동기가 무엇이고 필요 조건이 무엇이건 간에 존경과 정직과 교양과 지성으로 결혼과 행복한 가정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일단 나누었다면 이에 요구되는 모든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한번 사랑을 쟁취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쟁취한 사랑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여야겠습니다.결론으로, 결혼을 행복한 것으로 만드느냐 하는 문제는 전혀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² ○

1. 1969년 4월 일반총회에서 행한 데이비드 오. 맥케이 9대 대판장의 말씀.

2. “원만한 가정생활” 1935년 1월호의 “나의 행복한 결혼”에서.

위의 말씀은 1969년 8월 24일에 KSL 과 CBS 방송망을 통해 방송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유명한 물론 태버나클 합창단의 노래와 함께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600기로 싸이클의 서울 중앙 방송국 제2방송에서 한국어로 방송되고 있으며 560기로 싸이클의 AFKN 에서는 매 주일 오전 10시 5분부터 영어로 방송하고 있습니다.